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2023  
X  
제6회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2023년 12월 11일(월) 10:30~12: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F)

주최



주관 2023 스타트업코리아!





# Contents

## 축사

강훈식(유니콘팜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5
김한규(유니콘팜 책임연구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7

## 발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 .....	09
서효주(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	41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 종합토론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모색	
좌장. 김선우(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 센터장)	
토론1. 김영덕(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 .....	59
토론2. 강기성(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	63
토론3. 정진욱(시어스랩 대표) .....	69
토론4. 박재영(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74



## 축사

강훈식

유니콘팜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제6회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방성 수준을 진단하고, 글로벌 개방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글로벌 진출이란 당연히 필요한 도전이고, 따라서 글로벌 개방성 수준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진입 혹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입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국외 진출은 더 큰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더 활짝 개방할수록 마주할 문제점 또한 많아집니다. 해외 유수의 스타트업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토종 기업과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해외 투자 자본이 국내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의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무척이나 의미 있습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칠 블루오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기회와 튼튼한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하여, 이들의 성장을 독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샌드박스를, 입법을 통해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대표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방성 확대를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이점은 키우는, 균형 있는 입법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1.

유니콘팜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

## 축사

김한규

유니콘팜 책임연구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니콘팜의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우선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유니콘팜 대표 강훈식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재와 자본의 관점에서도 개방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벤처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본 조달 역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장치나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입법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한국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들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니콘팜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1.

유니콘팜 책임연구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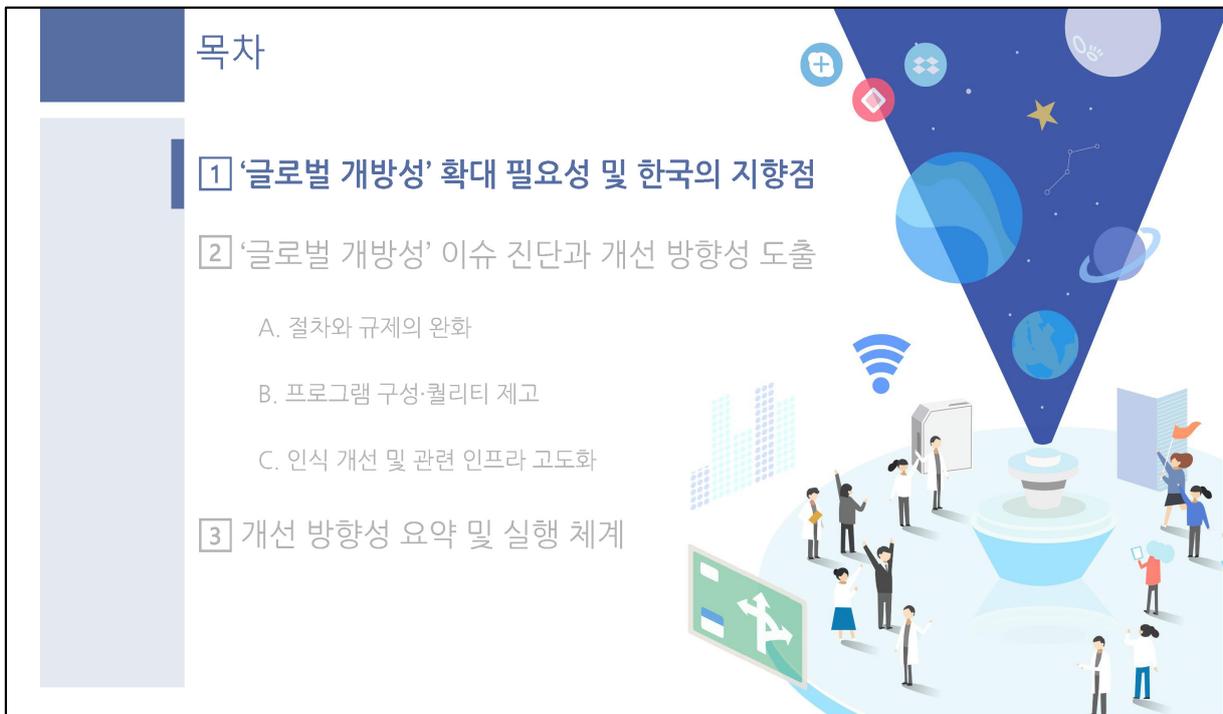
# 발제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1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정의



'국내-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 창업/자본/인재의  
인 & 아웃바운드 이동이 원활한 수준'

(인바운드는 '해외→한국'; 아웃바운드는 '한국→해외')

3

1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총론 관점 글로벌 개방성의 효익은 공감되나 일부 쟁점화 가능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공통) 한국 생태계의 글로벌 지위/인지도 상승

사회/ 경제적 효익	시장	국내총생산 및 세수 확대	글로벌 수요 공약으로 내수 시장 한계 극복
	사람	혁신 산업 내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예. AI, Bio 등)	성공 사례 확대로 후배 인력 양성
	자본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로 자본 시장 발전	성공적인 해외 투자/회수 후 국내 재투자 확대
잠재적 쟁점 사안	시장	해외 유입 vs. 토종 업체 간 경쟁	세원/IP의 해외 이전
	사람	국내 일자리 유연성 (해외 노동력 수용)	국내 성장/혁신 산업 노동력의 부족
	자본	해외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소유 관련 논쟁	국내 스타트업 간 편당 경쟁

출처: 문헌조사

4

1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 쟁점 완화 사례

### 선도국들은 민-관 협력 및 제도 보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개방성은 지속 확대

**영국 사례** (국내 일자리 관련)

개방성 확대 목적으로 비자 신설했으나 부작용 우려 확산;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심사 역할 이전하며 정책 개편

**확대**

- '11.4 해외 고급 인력 확보 및 스타트업 창업 증대를 위한 Entrepreneur 비자 제도 신설
- '13 체류 연장 및 이민 목적으로의 악용 사례 다수 포착; 자국 노동자 총 중심으로 반 이민자 여론 확대
- '15.3 영국 정부가 이민자문위원회(MAS)에 이민자 정책 및 비자 운영 부작용에 대한 조사 촉구
- '15.9 조사 결과 기존 '정부 주도'의 비자 심사 제도는 영국 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창업가 선별이 어렵다고 결론
- '19.3 기존 Entrepreneur 비자 폐지; Start up 비자, Innovator 비자 신설\*하고 사업 평가는 민간으로 이관

**프랑스 사례** (해외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소유 관련)

해외 자본 유치 마케팅 펼쳤으나 유수 테크 기업 인수 증가로 핵심 산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 확산; 이후 외국인 투자 안전 장치 마련

**확대**

- '13.11 La French Tech 출범과 함께 프랑스 스타트업 대상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적극 노력

**쟁점 확산**

- '15~'18 해외 자본이 Zenly, Medtech 등 프랑스 유수 테크 스타트업 인수하며, 해외 자본의 경영지배 우려 확산

**정부 대응**

- '18.2 자국 기업-산업 보호에 대한 규정 강화 논의 및 추진 계획 발표 (AI, 빅데이터, 나노, 반도체 등 6개 핵심 분야)
- '19.12 입법 절차 통과

한국도 개방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은 고려 필요 하나, 생태계 주체간 논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준비 필요

\*기존 Entrepreneur 비자 대비 자본금 요건 완화하면서 민간으로 사업 평가 가능 이전; 출처: 영국 내무부;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보고서; Station F; La French Tech;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1

국가별 경쟁력 비교

##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연결성(개방성)' 열위

☑ 서울 대비 우위 도시

주요 도시 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비교 (항목 별 10점 만점 기준\*)

순위	생태계	재무 성과	펀딩	내외부 연결성	글로벌 경쟁력	지식재산권 수준	인재 경쟁력
1	미국 Silicon Valley	10	10	10	10	9	10
2(tied)	미국 New York	10	10	10	10	6	10
2(tied)	영국 London	9	10	10	10	6	10
4	미국 Los Angeles	10	10	8	9	6	9
5	이스라엘 Tel Aviv	9	9	9	10	5	8
6	미국 Boston	9	9	8	9	6	10
7	중국 Beijing	10	4	3	8	10	10
8	싱가포르	7	9	9	9	1	7
9	중국 Shanghai	9	3	1	6	10	9
10	미국 Seattle	8	6	4	8	7	8
11	미국 워싱턴 D.C.	8	5	2	9	3	8
12	한국 Seoul	7	8	7	1	8	7
13	독일 Berlin	6	8	9	5	1	6
14	네덜란드 Amsterdam	6	7	10	6	1	6
15	일본 Tokyo	4	7	7	1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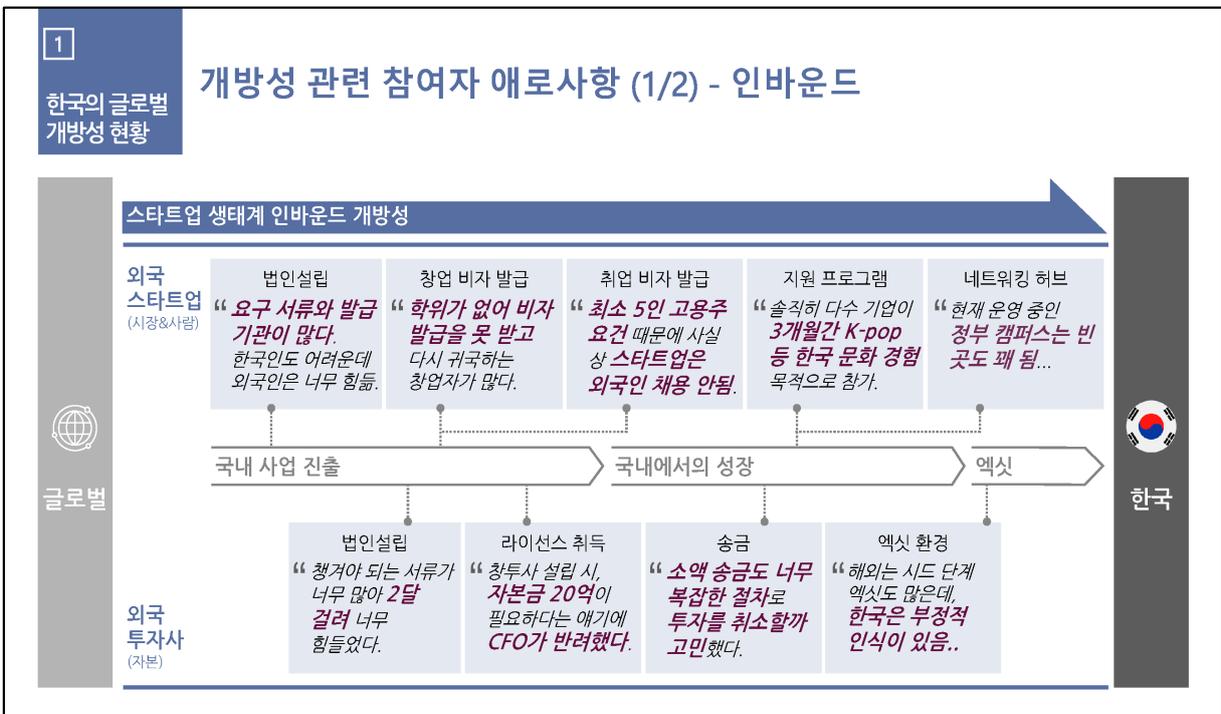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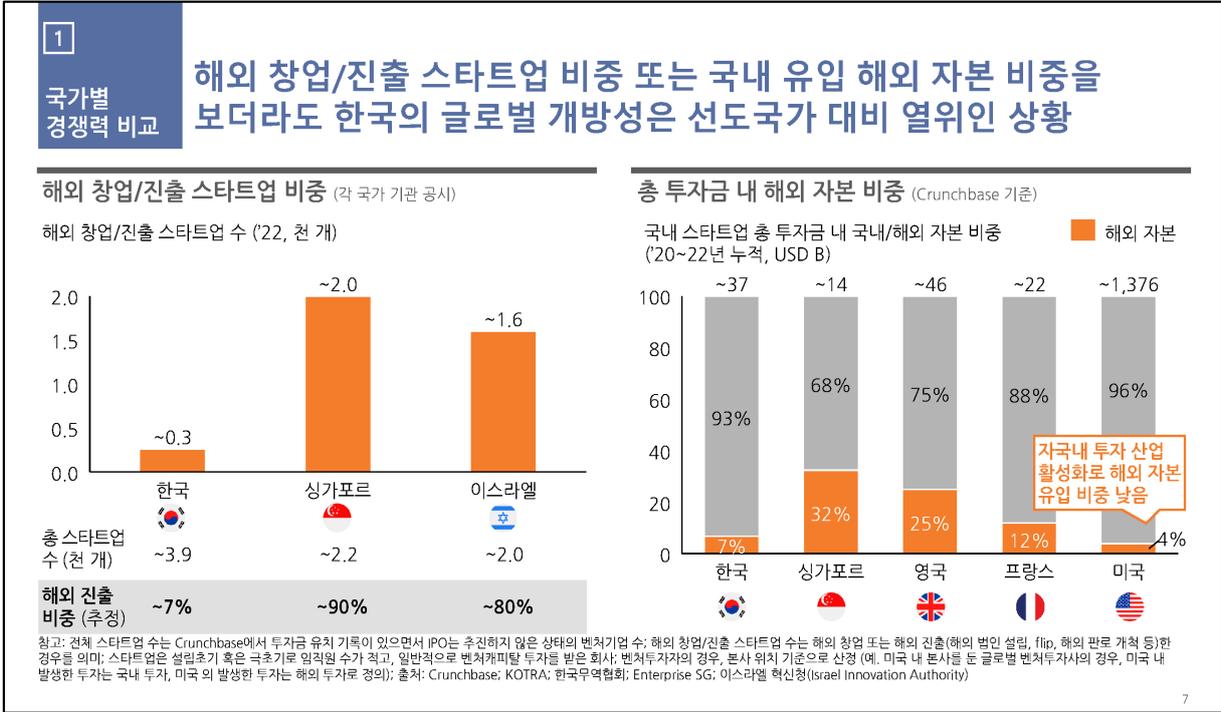
글로벌 개방성 지표 세부 평가

생태계 내부 연결성	글로벌 연결성 해외 스타트업 비중 및 해외 자본 유치 수준
10	9
10	9
10	10
9	7
8	10
9	7
5	4
7	10
1	5
7	1
6	2
8	6
9	9
10	10
7	7

글로벌 개방성 지표

\*Startup Genome의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의 생태계 순위 준용; 출처: Startup Genome

13



**1**  
한국의 글로벌 개방성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웹사이트 영문서비스 현황

“ 외국인 창업가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언어장벽이다... 정보를 찾아보려고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국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답답하다...”

### 정부 창업 관련 웹사이트 상당이 국문으로 외국인 이용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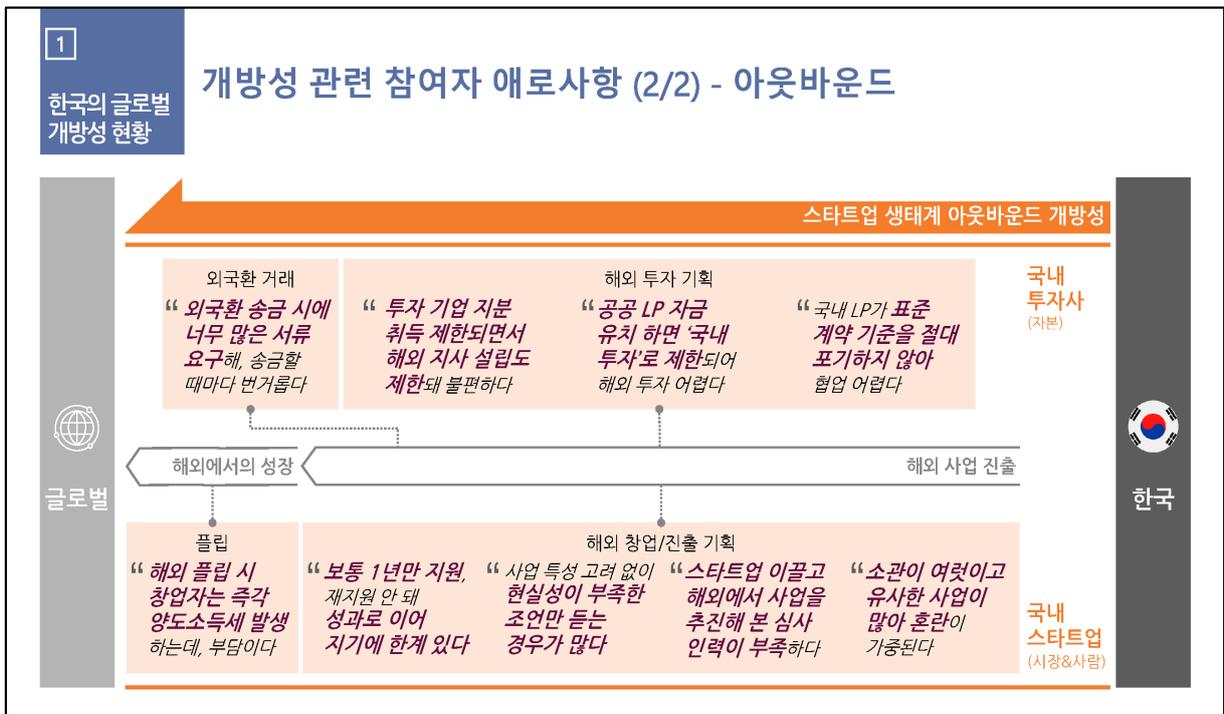
영문 미제공

**KR EN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KR EN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KR EN 모든 벤처 투자 정보를 하나로!**

**KR EN 더 많은 서비스 고객센터**



1

싱가포르 글로벌 개방성 사례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도 불구하고, 본원적 경쟁력과 함께 정부-민간 연계한 글로벌 개방성 강화 노력 기반 아시아 허브로 성장

### 국가별 경쟁력 비교

① 생태계 본원 경쟁력 우위	유리한 국가 특성 <small>(다민족 &amp; 영여권 &amp; 지리적 이점)</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민족 국가(외국인 비중<sup>1)</sup> 38%); 공용어 영어 사용</li> <li>• 동남아 중심에 위치 - 아시아 내 전략적 거점으로 유리</li> </ul>
② 글로벌 개방성 강화 <small>(정부-민간 협력 체계 구축 기반)</small>	기업 친화적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최대 ~17%로 선진국 중 최저; 스타트업 면세 혜택<sup>2)</sup></li> <li>• 자본이득<sup>3)</sup> 관련 비과세 정책</li> </ul>
	산업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거티브 규제' 도입</li> <li>• 혁신 산업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및 활성화</li> </ul>
	창업/취업 비자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투자사의 투자 유치 시 외국인 창업 전용 비자 발급</li> <li>• 학력, 경력 요건이 없어도 다면 평가로 취업 비자 발급</li> </ul>
	육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민간 협력하여 내/외국인 전체 대상 육성 프로그램 다수 운영 (민간에서 프로그램 멘토/투자자로 참여)</li> </ul>
	민간 투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투자사가 초기 테크 업체 투자 시 정부는 50~70% 규모 공동투자<sup>4)</sup> 집행 (Startup SG Equity 프로그램)</li> </ul>
	창업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 대규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Launchpad @ One-North, Block 71 등)</li> </ul>

### 싱가포르 생태계 글로벌 평가

글로벌 개방성 공동 1위

'글로벌 연결성' 항목 만점 ('23)

- Startup Genome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세계 4위

FDI<sup>5)</sup> 유입 규모 \$99Bn ('21)

- 미국, 중국, 홍콩 이어 4번째 규모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허브 역할 1위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HQs 46%

싱가포르 소재 ('22)

1) 전체 거주 인구 중 외국인 비중; 2) 첫 SGD 100K 소득의 75% 면세; 3) 배당금,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등; 4) 최초 투자 유치금액 SGD 250K의 70%, 이후 SGD 2M까지 50% 정부 부담; 5) Foreign Direct Investment; 출처: Startup Genome; 무역협회; KOTRA; 문헌 조사

1

대한민국 정부 정책 동향

## 한국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책을 공표 ('23.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국가별 경쟁력 비교

### 글로벌 개방성 관련 정부 동향

대통령 주요 행보	관련 정책 방향성	대통령 주요 코멘트
<p>○ '23.2 UAE 순방 및 국내 벤처·스타트업 진출 격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스타트업 전시 참여 및 국부펀드 투자 등 <b>벤처·스타트업 협력 강화 모색</b></li> </ul>	<p><i>"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통한 순방 성과가 중소 벤처기업 투자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지게... 수출 현장 문제를 윈스톱 지원하는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하겠음"</i></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23. 02. 24, UAE 순방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p>
<p>○ '23.6 프랑스 Station F 방문</p> <p>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우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지원 목적 협업 추진; 이후, <b>한국판 Station F 신설 계획 발표</b><sup>1)</sup></li> <li>• 한-베 과학기술부 간 <b>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혁신기술이전 MOU 체결</b></li> <li>- 하노이 내 <b>'코리아스타트업센터'</b> 신설</li> </ul>	<p><i>"외국 청년이 한국에서 원활히 창업하고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을 대한민국 국내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하겠음."</i></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23. 06. 20,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p> <p><i>"오늘 이 자리"는 베트남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여러분의 도전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i></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23. 06. 22,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p>
<p>○ '23.8 <b>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b> 발표</li> <li>- 글로벌법무스,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외국인 창·취업 비자 요건 완화 및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li> </ul>	<p><i>"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함."</i></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23. 08. 30,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p>

1) '23년 7월 19일 국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 주제의 제 6회 국가원안 대토론회; 2)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중 '메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행사; 출처: 문헌 조사

**1**  
한국의 글로벌  
개방성 지향점

## 지향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의 지향점

**As-is 출발점**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

→

**To-be 지향점**

민관 연계 기반으로 국가간 경계 없이 창업/성장/엑싯 지원하는 글로벌 Top 스타트업 생태계

<p>글로벌 경쟁력 강화</p>	<p>아시아 위상 제고</p>	<p>인 바운드</p>	<p>아웃 바운드</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글로벌 생태계 순위 10~20위권 수준; 전체 순위 대비 열악한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글로벌 생태계 순위 Top 5 진입</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아시아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존재감 미미</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next 허브로 도약</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내국인 중심의 폐쇄적인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해외 유수의 스타트업·투자자 유입이 제한적</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내국인과 어우러져 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amp;인프라 마련</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단기 교육/채류 등 피상적인 경험 수준의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현지 안착·성장 지원이 미흡</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성장 가능한 토대 구축</td> </tr> </table>	글로벌 생태계 순위 10~20위권 수준; 전체 순위 대비 열악한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		글로벌 생태계 순위 Top 5 진입	아시아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존재감 미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next 허브로 도약	내국인 중심의 폐쇄적인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해외 유수의 스타트업·투자자 유입이 제한적		내국인과 어우러져 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 마련	단기 교육/채류 등 피상적인 경험 수준의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현지 안착·성장 지원이 미흡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성장 가능한 토대 구축
글로벌 생태계 순위 10~20위권 수준; 전체 순위 대비 열악한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		글로벌 생태계 순위 Top 5 진입														
아시아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존재감 미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next 허브로 도약														
내국인 중심의 폐쇄적인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해외 유수의 스타트업·투자자 유입이 제한적		내국인과 어우러져 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 마련														
단기 교육/채류 등 피상적인 경험 수준의 지원 제도 및 정책으로 현지 안착·성장 지원이 미흡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성장 가능한 토대 구축														

13

**목차**

- 1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및 한국의 지향점
- 2 '글로벌 개방성'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 도출
  - A. 절차와 규제의 완화
  - B.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제고
  - C. 인식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 3 개선 방향성 요약 및 실행 체계

4

2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  
도출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 절차와 규제 완화, 프로그램 지원 품질 제고, 인식/인프라 개선 영역에서 8개 과제 제안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A 비효율적 &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	B 정부-민간 연계 확대 통해 실질적 지원 가능한 제도와 프로그램 구성·품질 제고	C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인식 및 관련 인프라 개선
인바운드	<p><b>A1</b> 외국인 국내 창업 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p> <p><b>A2</b>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p> <p><b>A3</b>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p>	<p><b>B1</b>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p>	<p><b>C1</b>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p> <p><b>C2</b>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고도화·활성화 (예.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확대, 네트워킹 허브 고도화 및 실질적인 외국인 위한 커뮤니티 확대)</p>
아웃 바운드	<p><b>A4</b> 해외 진출 시 과도한 규제 완화 (예.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p>	<p><b>B2</b>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품질 개선</p>	

15

2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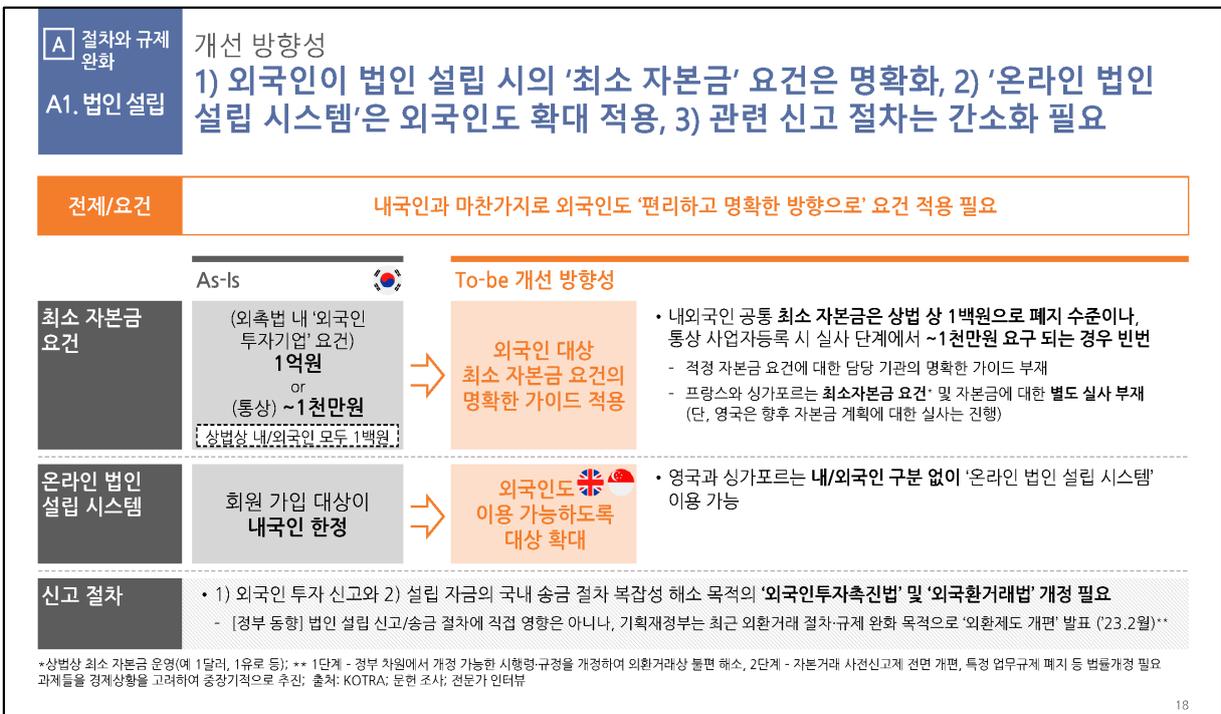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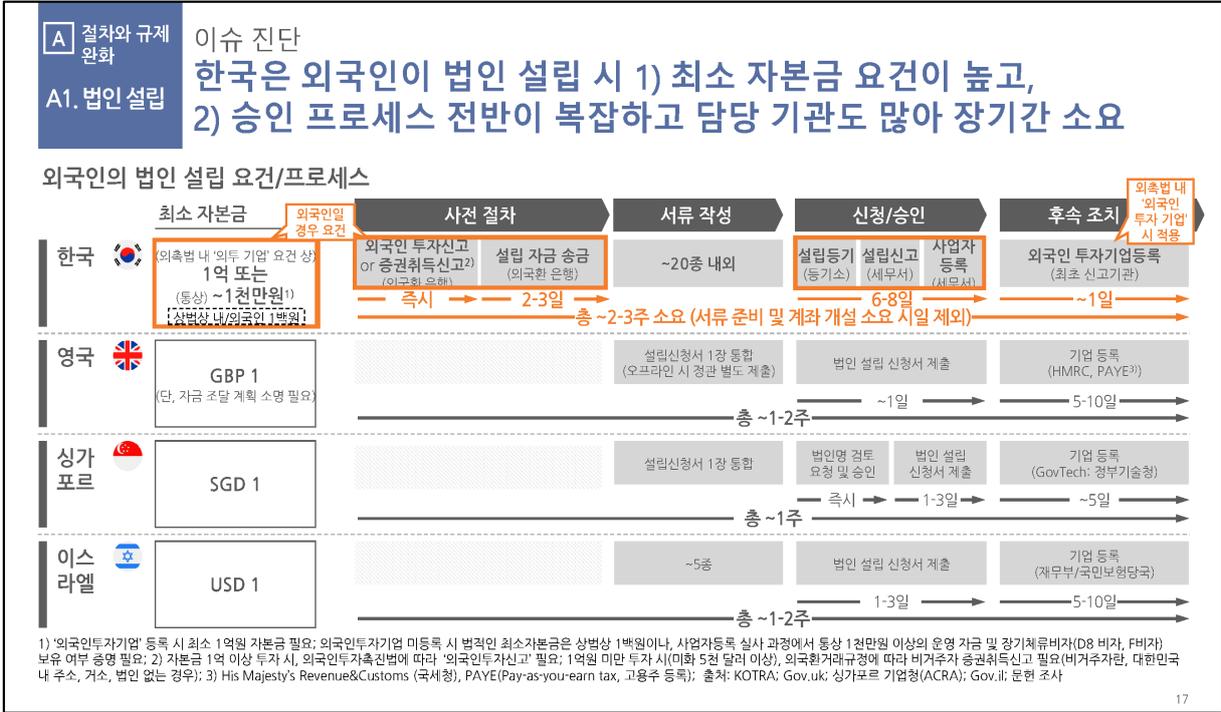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 절차와 규제의 완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A 비효율적 &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	B 정부-민간 연계 확대 통해 실질적 지원 가능한 제도와 프로그램 구성·품질 제고	C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인식 및 관련 인프라 개선
인바운드	<p><b>A1</b> 외국인 국내 창업 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p> <p><b>A2</b>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p> <p><b>A3</b>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p>	<p><b>B1</b>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p>	<p><b>C1</b>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p> <p><b>C2</b>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고도화·활성화 (예.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확대, 네트워킹 허브 고도화 및 실질적인 외국인 위한 커뮤니티 확대)</p>
아웃 바운드	<p><b>A4</b> 해외 진출 시 과도한 규제 완화 (예.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p>	<p><b>B2</b>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품질 개선</p>	

16



**A** 절차와 규제 완화  
**A2. 창업비자**

이슈 진단  
**한국의 외국인 창업 비자(D-8-4)는 선도국가 대비, 1) 발급 요건, 2) 갱신 주기/요건, 3) 동반 가족 비자 발급 관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상황**

	한국 (D-8-4 기술창업비자)	싱가포르 (EntrePass)	프랑스 (French Tech Visa)	영국 (Innovator Founder)	미국 (E-2 소액창업투자)
<b>창업비자 발급요건</b>	<b>핵심 요건</b> (핵심 요건의) 보조 요건 <sup>1)</sup>	기관 투자 유치 or 특허 등록	기관 투자 유치 or 액셀러레이팅 선발 <sup>2)</sup>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공인 기관의 승인	투자 및 비용 집행 <sup>4)</sup>
<b>학력</b>	국내 전문학사 or 외국 학사		La French Tech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발급	공인영어성적 (CEFR B2+)	
<b>사업계획</b>		제출-승인은 '불'필요	제출-승인	제출-승인	
<b>법인설립 여부</b>	절차 개시 필요				선행 필요
<b>구비 서류 수</b>	서류 12종	6종	10종	6종	18종
<b>비자 갱신 주기/요건</b>	1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 평가	2년 주기 <sup>3)</sup> ; 사업 실적 종합 평가	4년 주기; 사업 존속 시 계속 연장	3년 주기; 사업 존속 시 계속 연장	2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 평가
<b>동반 가족 비자</b> (한국 기준 F-3)	조건부 발급 (창업자의 자격 증명 및 소득 평가)	조건부 발급 (\$100K 지출 및 현지인 고용)	조건 없이 발급	조건부 발급 (통장 잔고 증명)	조건 없이 발급

1) 핵심 발급 요건 미충족 시 대체; 2) 각 정부 공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 3) 최초 갱신 시 1년 주기, 이후 2년; 4) 최소 투자액 규정은 부채하나 통상 \$50-100K·기 설립 기업 구매 및 기업 설립 소요 되는 비용 상당' 경야; 출처: 각국 비자 발급처; 문헌 조사

19

**A** 절차와 규제 완화  
**A2. 창업비자**

개선 방향성  
**'학력', '서류', '법인 설립' 등 형식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창업가의 실질적인 사업 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연계 바탕 사업성 검토 기제 강화**

**전제/요건** 우수 외국인 창업자 발굴에 실기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형식은 완화하고 본질적 사업 역량을 실질 검증/평가 필요

	As-Is	To-be 개선 방향성
<b>발급요건</b>	학력 국내 전문학사 or 외국 학사 (한국 기준 F-3)	폐지 • 전향적인 학력 요건 폐지를 통해 성공 잠재력 보유한 외국인 창업가 유치 - 'SmallPDF' 개발 스위스 창업가가 학위 문제로 귀국 ('13), 이후 글로벌기업 성장 - 단, 최근 국내 정책 동향으로 관계기관장이 창업가 추천 시, 학력 요건 면제 ('18~) • 싱가포르 및 프랑스는 창업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 부재
<b>사업역량평가</b>	서류 • 제출 서류 종류 및 형식 간소화 필요; 선도국 대비 한국은 다수 기관에서 서류 발급 필요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 모델 및 사업성 사전 평가 필요; 선도국과 다르게 한국은 사업계획서 미요구 (오아시스 점수 등 기술 위주)
<b>사업역량평가</b>	법인 설립 • 비자 발급 전 법인 설립 의무화 요건 폐지 고려 필요 - 상당 선도국은 해당 조건 부재; 단, 한국도 현재 법인 설립 절차 추진 중*인 경우에 발급 허가 중이나 원칙은 사전 법인 설립 완료를 요구	민간 연계 강화 • 선도국들은 민-관 협력 기반, 공인된 민간 기관 추천 시 비자 발급 - 민간 연계로 프로그램 구성/방식의 유연성 확보 및 전문성 역량 활용 • 한국도 민간 기관 프로그램 선정된 우수 업체 대상 비자 발급 고려 가능

\*기술창업비자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하나, 법인 설립 서류는 원료되지 않더라도 6개월 유예하여 제출 가능; 출처: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20

A 절차와 규제 완화		이슈 진단				
A2. 취업비자		국내 외국인 취업비자(E-7-1)의 취득 및 갱신은 선도국가 대비 1) 높은 수준의 학력/경력 요구, 2) 다수의 고용주 제약 사항 존재				
취업비자 운영 현황 <sup>1)</sup>		한국 (E-7-1 기술창업비자) 연 발급 건수 (단위:만 건) <b>0.4</b>	미국 (H-1B) <b>8.5</b>	영국 (Skilled Worker) <b>12.0</b>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b>4.5</b>	발급 상한 최대치
근로자 제약	학력/경력	• 관련 석사 학위 소지 or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보유 or •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선도국 대비 요건 높음	• 관련 분야 학사 이상 or • 관련 자격증 보유	• 영국 공인인증시스템 Level 3 이상 수료 (정규 고등학교 졸업 수준)	• 학력은 가산점 성격으로 운영 (경력 요건 부재)
	체류 기간	• 최초 최대 3년 부여; 고용 유지 시 3년+a 연장 가능		• 최초 3년 부여, 이후 3년 추가 (3+3); 고용 유지 시 매년 연장	• 최초 5년 부여; 고용&직종 유지 시 5년 추가 연장 (5+5)	• 최초 3년 부여; 고용 유지 시 연장 (3년 + a)
고용주 제약	영주권 신청 권한 요건	• 5년 만기 체류/근무 시 부여 <sup>2)</sup>		• 6년 만기 체류/근무 시	• 5년 체류/근무 시	• 6개월 이상 근무 시
	외국인 고용 비율	• 내국인 피고용자 수 대비 20% <sup>3)</sup> 이내 채용 - 한국인 5명 당 외국인 1명	고용주 제약 존재	N/A		
	인원 규모	• 5인 이상 기업				
	업종 제약	• '내수 사업' 업체는 제한				

1) 한국 E-7-1 발급 건수는 '22년 12월 기준 E-7-1 체류자 11,307명을 갱신 주기 3년으로 나누어 추정; 미국은 매년 ~80만명이 지원해 발급 건수를 ~8.5만 건으로 제한; 영국 발급 건수는 '22년 기준; 싱가포르는 '22. 3Q 기준 11,300건 발급 강안, 연 총 발급 수 4배 수준인 ~4.5만건으로 추정; 2) 일반적으로는 E-7-1 비자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후 F-5-1 영주비자 신청 시 GNI 2배 연봉 요구되나 산업발전법 5조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학/석사 보유자는 3년 이상 근무/체류 및 GNI 1배 수준 이상 연봉 수준으로 F-5-10 비자 취득 가능; 3)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분야는 총 내국인 피고용자의 50% 이내,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내국인 피고용자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 허용; 출처: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21

A 절차와 규제 완화		개선 방향성	
A2. 취업비자		취업비자의 학력/경력 요건 관련 다면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고용주 제약은 E-7-1 비자 대상 선별적으로 폐지 필요	
전제/요건		유연한 평가 기준 및 제약 최소화해 해외 인력 유치 도모	
학위/경력	As-Is 한국 학위/경력 요구	To-be 개선 방향성 다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는 '23.8 '종합대책'에서 E-7-1 취업비자 발급 요건 중 특정 업종<sup>1)</sup> 국한하여 경력 요건 완화 계획 (예. '학사+경력 1년'에서 '학사')</li> <li>• 싱가포르와 유사한 '다면적 평가' 제도 운영 검토 필요</li> <li>- 싱가포르는 학위 요건을 '23.9월 폐지; 종합평가점수제 (COMPASS) 운영</li> </ul>
고용주 제약	요건 여부 제약 요건 부과 (고용 비율, 인원 제약 등)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비자 내 고용주 제약의 입법 취지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목적</li> <li>• 싱가포르 EP 비자(국내 전문인력 대상 E-7-1와 유사)는 해외 고급 인력 유입 목적으로 고용할당, 고용분담금<sup>2)</sup> 등 고용주 제약 폐지</li> <li>- (국내 '숙련기능인력' 대상인 E-7-4 유사) S-Pass/Work Permit<sup>3)</sup>는 제약 유지</li> </ul>
	적용 대상 E-7 전체	E-7-1만 선별적 폐지 (전문인력 대상 on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한국도 점층적으로 현 입법 취지 훼손 최소화하며 고용주 제약 요건의 완화 가능하도록 E-7-1 비자 대상만 선별적 제약 폐지 필요</li> <li>- 비자 제도 원칙<sup>4)</sup> 상 E-7-1 '전문인력'은 직능 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운 반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어 보호장치 마련 필요</li> </ul>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법무장관이 정하는 분야, 중기장관이 추천; 2) 고용분담금 제도는 '82년 low-skilled 근로자 대상으로 도입 후 산업 및 적용범위 확장 중이며, high-skilled 근로자 해당 사항 없음; 3) Semi/unskilled 외국인 노동자 대상 비자; 4) 231004(하이코리아) 사용인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중 '발체'; 출처: 법무부; Hi Korea; 싱가포르 통화청; 문헌 조사

22

A 절차와 규제 완화

A2. 취업 비자

### 선도국 사례

## 싱가포르의 취업 비자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외국인 취업자의 학력, 자국의 노동력 수요,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 발급 심사

---

싱가포르 취업 비자(Employment Pass) 발급 심사 기준 ('23년 9월 도입)

1단계: 최소 임금 수준 평가

2단계: COMPASS\*\* 평가

전문 관리/기술직 임금(PMET\*) 상위 33% 초과 시 1단계 승인

COMPASS 평가 항목 (총 110점)에서 '40점 이상' 획득 시, 'Employment Pass' 비자 발급 요건 달성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기초 평가 (8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SGD 5.5K / 비금융권 월 최소 SGD 5K 소득 증빙 ('23년 9월 기준)</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보너스 평가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4세 이상부터 매년 최소 임금 기준 5% 인상</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임금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상위 10% 이상은 20점</li> <li>• 임금 상위 35% 이상 10% 미만은 10점</li> <li>• 상위 35% 미만은 0점</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다양성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 동일국적 비중 25% 미만은 20점</li> <li>• 5~25%는 10점</li> <li>• 25% 이상은 0점</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학력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상위권 대학 학위 보유 시 20점</li> <li>• 일반 학사 학위 소지 시 10점</li> <li>• 학사 학위 미보유 시 0점</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현지 고용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현지인 고용 비중 상위 50% 이상은 20점</li> <li>• 하위 80% 이상은 10점</li> <li>• 하위 80% 미만은 0점</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국가 부족 인력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기관 프로그램 연계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경제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지원 받는 기업일 경우 10점</li> </ul>			

\*PMET: 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Shortage Occupation List;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A 절차와 규제 완화

A3. 해외 자본 유입 장벽

### 이슈 진단

##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이 국내 진출 시 법인 설립, 라이선스 취득, 송금 등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움

---

해외 자본의 국내 진출 시 주요 이슈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국내 진출 단계</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법인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요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 (외국인의 통상적인 창업 절차와 동일)</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사업 운영 단계</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라이선스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최소 자본금 및 2) 전문 인력 요구; 선도국 대비 높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자본금: 액셀러레이터 1억, 창투자 20억, 신기사 100억; 싱가포르는 별도 자본금 요건 부재</li> <li>- 전문 인력 요건: 전문직/3년+ 경력자/상장법인 창업자 등 요구; 싱가포르는 자국내 거주 정규직 외 별도 요건 부재</li> </ul> </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사업 운영 단계</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송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사업 운영 단계</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정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정관 변경 시에도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주주변경/신주발행/임원변경 등</li> <li>- 단, 국내 투자법인은 일부 정관 변경 시 '공증'은 필요</li> </ul> </li> </ul>

투자자 VOC

“해외(예. 미국)는 투자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루만에 간편하게 법인 설립; 한국은 다수의 공증 절차 및 구비 서류 준비로 2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

“한국 진출 시 창투자 취득 예정이었으나, 최소 자본금 20억 요구로 본사 CFO 승인 받기 어려워 포기한 경험 있음... 싱가포르는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이 별도로 없으나, 한국의 경우 전문 인력 요건이 까다로움”

“벤처캐피탈은 사모펀드와는 다르게 소액 투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음... 투자금 규모 대비 송금마다 들어가는 시간/노력 생각했을 때 투자 포기 고려 빈번”

“한국 투자법인은 정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인감만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가면 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모든 정관 변경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해 번거로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간 발행 문서에 대해 추가적 확인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문서발행국과 문서접수국간 공증 서류; 출처: 해외 VC 인터뷰; 한국벤처투자;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문헌 조사

22

A

절차와 규제 완화

개선 방향성

A3. 해외 자본 유입 장벽

라이선스 취득 시 전문 인력 경력과 최소 자본금 요건은 장기 관점 폐지 고려하되,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전제/요건      투자 활성화 차원, 해외 자본의 국내 진출 및 운영 상 제약 전반에 대한 완화 모색

	As-Is		To-be 개선 방향성		
라이선스 취득 요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경력 요건 유지             </div>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폐지/부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싱가포르는 라이선스 전문인력 경력 요건 없음</li> <li>- (상) '17년 VC의 경력 5년 요건 폐지</li> <li>- (미) VC/PE/자산운용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록 시 전문인력 경력 요건 부재</li> </ul>	부작용 방지 사례 (싱가포르) '관리 감독 체계 강화 바탕,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 전문 기관과 사전 논의 통해 타당성 및 잠재적 리스크 논의 후 '폐지' 입법 추진</li> <li>• 정부에 연 1회 '펀드운영 현황' 보고; 규정 위반 시 최대 라이선스 취소 적용</li> <li>• '23년 정부 검토' 결과, '중대한 위반 사례는 미발견'</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자본금 요건<sup>1)</sup> 유지             </div>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폐지/부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싱가포르는 VC 라이선스 획득 시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li> <li>- (상) '17년 VC의 SGD250K 자본금 폐지</li> <li>- (미) VC SEC 등록 면제 조항 신설 (08)</li> </ul>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자금 국내 송금 시 절차 복잡성 해소 목적, '외국환거래법' 개정 필요</li> <li>- [정부 동향] 상기 신고/송금 절차에 직접 영향은 아니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목적으로 '외환제도 개편' 발표 ('23.2월)<sup>4)</sup></li> </ul>				
정관 변경 (아포스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포스티유 요구는 협약국 간 보편적 절차로 한국 외 싱가포르/미국 와 같은 대부분의 선도국도 요구하고 있어 간소화 어려움</li> </ul>				

Note: 별도 VC 라이선스가 없는 이스라엘은 전문인력과 최소자본금 미요구; 1) 창업투자회사 자본금 요건 추이: '85년 20억→'91년 100억→'05년 70억→'09년 50억→'17년 20억; 2) 법무법인, 컨설팅, PE 의견 수렴; 3) 싱가포르 통화청은 '22.3-11월 VCFM 라이선스 156개 업체의 투자 대상/비중, 규정 준수 여부 등 조사; 출처: 창업진흥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싱가포르 통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헌 조사

A

절차와 규제 완화

개선 방향성

A3. 해외 투자 제약

해외 투자 '주목적'인 정책 자금은 신설, 창투사 40% 국내 의무 투자 비율은 미국 등 사례 감안 시 단계적 폐지 고려;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 제약도 해소 필요

전제/요건      내수 활성화 목적인 '국내 출자/투자 제한'은 개방성 확대 가능한 방향으로 단계적 개정/폐지 고려

(유한책임조합원, Limited Partner)

정부 출자자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등)  
출자

민간 출자자

출자

모태출자 펀드<sup>2)</sup>

투자

중소·벤처기업

제약/이슈	To-be 개선 방향성	
모태펀드의 주목적 비중 60% 제한	➔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font-weight: bold;">'해외투자 주목적'인 정책 자금 출자 신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가 주목적' 모태펀드 계정 통한 출자 신설</li> <li>- 해외 투자 주목적 출자 사업 부재; 해외펀드 대상 '글로벌 펀드' 위주 운영<sup>3)</sup></li> <li>- 단, 모태펀드 규약 상의 '60% 주목적 투자 비중 제한'은 스타트업 대상 펀드뿐 아니라 타 목적 펀드에도 적용; 비율 완화 시 적용 범위가 광범위</li> </ul>
총 운용 자산의 국내 40% 투자 대상 제한 <sup>4)</sup>	➔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font-weight: bold;">창투사의 출자 제한 비율 단계적 축소/폐지</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font-size: x-smal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국내 선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사의 의무투자 비율 제한 완화 선례 존재 ('20)</li> <li>- 창업기업 대상 투자 비중 '펀드별' → '총 운용자산'으로 자율성 강화</li> </ul>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font-size: x-smal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선도 국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미국 등은 운용자산 투자 비율 형태의 제한 부재</li> <li>- 단, 미국은 국가 안보 관련 지역/기술 투자는 제한</li> </ul> </div>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 <sup>5)</sup>	➔	<div style="background-color: #ffe4c4; padding: 5px; font-weight: bold;">해외 지사 설립 관련 예외 적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관련,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범위 내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li> <li>- '창업' 단계 회사에 대한 직접적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이 취지</li> </ul>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2)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3) 견지신문 2021-06-24 신설VC도 해외벤처투자 확대...모태펀드, 국내 VC 해외진출 전략 출자 확대해야 기사 참고; 4) 벤처투자법 제 38조; 5)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 25조 제4호; 출처: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A

절차와 규제 완화

A4. 해외 진출 제약(플립)

### 이슈 진단

## 스타트업은 플립 니즈가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과 기존 투자자 동의 확보에 어려움 존재

**Flip 정의**      글로벌 VC 요구 또는 국내 산업 규제 탈피 등 목적, 스타트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행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 border: none;">이슈</th> <th style="width: 40%; border: none;">한국</th> <th style="width: 50%; border: none;">이스라엘</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80004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양도소득세 부담</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분 양도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 부과; 투자자 면세 특례 있으나 창업가는 불가</li> <li>- VC/개인투자자 국내 양도소득세는 조특법<sup>1</sup>상 면세 가능; 단, 1) 중복, 2) 해외 주식 적용 여부 불투명</li> <li>- 또한, 창업가는 면세 자체가 불가하고 역면가 대비 차액이 커서 플립 시점에 세금 납부 부담 존재</li> </ul>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 일정 조건에 따라 ~25% 양도소득세 면세; 이후 IPO시 과세</li> <li>- 지분 25% 이상은 이스라엘 국세청 승인한 이스라엘 국적 주주들이 최종 매각 시점까지 보유 의무</li> <li>- 다만, 해외에서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존재함</li> </ul>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80004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투자자(VC) 동의 확보 어려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국가 변경으로 기존 주주 권한 약화 우려 (주주 계약서 재작성 및 권리 재설정 등)</li> <li>•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사후 관리 난이도 상승</li> </ul>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N/A (한국 VC와 유사 상황)</td> </tr> </table>	이슈	한국	이스라엘	양도소득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분 양도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 부과; 투자자 면세 특례 있으나 창업가는 불가</li> <li>- VC/개인투자자 국내 양도소득세는 조특법<sup>1</sup>상 면세 가능; 단, 1) 중복, 2) 해외 주식 적용 여부 불투명</li> <li>- 또한, 창업가는 면세 자체가 불가하고 역면가 대비 차액이 커서 플립 시점에 세금 납부 부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 일정 조건에 따라 ~25% 양도소득세 면세; 이후 IPO시 과세</li> <li>- 지분 25% 이상은 이스라엘 국세청 승인한 이스라엘 국적 주주들이 최종 매각 시점까지 보유 의무</li> <li>- 다만, 해외에서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존재함</li> </ul>	투자자(VC) 동의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국가 변경으로 기존 주주 권한 약화 우려 (주주 계약서 재작성 및 권리 재설정 등)</li> <li>•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사후 관리 난이도 상승</li> </ul>	N/A (한국 VC와 유사 상황)
이슈	한국	이스라엘									
양도소득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분 양도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 부과; 투자자 면세 특례 있으나 창업가는 불가</li> <li>- VC/개인투자자 국내 양도소득세는 조특법<sup>1</sup>상 면세 가능; 단, 1) 중복, 2) 해외 주식 적용 여부 불투명</li> <li>- 또한, 창업가는 면세 자체가 불가하고 역면가 대비 차액이 커서 플립 시점에 세금 납부 부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 일정 조건에 따라 ~25% 양도소득세 면세; 이후 IPO시 과세</li> <li>- 지분 25% 이상은 이스라엘 국세청 승인한 이스라엘 국적 주주들이 최종 매각 시점까지 보유 의무</li> <li>- 다만, 해외에서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존재함</li> </ul>									
투자자(VC) 동의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국가 변경으로 기존 주주 권한 약화 우려 (주주 계약서 재작성 및 권리 재설정 등)</li> <li>•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사후 관리 난이도 상승</li> </ul>	N/A (한국 VC와 유사 상황)									

**“ 벤처캐피탈 대상 설문조사 결과, 플립 관련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으로는 양도소득세 (45%), LP 동의 획득 (15%), 외국인 이슈 (15%)가 선정됨**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한국벤처투자; 전문가 인터뷰

A

절차와 규제 완화

A4. 해외 진출 제약(플립)

### 개선 방향성

##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 & 특정 요건 충족 기업 국한하여 확대; 투자자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요건의 명확화 필요

전제/요건      1) 실질적 이득에 기반한 과세 원칙, 2) 법 적용 범위/여부 명확화 통해 플립 활성화 가능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 border: none;">As-Is</th> <th style="width: 40%; border: none;">To-be 개선 방향성</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8px;">‘창업가 대상’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창업가 제외 (VC/개인 투자자만 특례)</p>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창업가 포함</p>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8px;">적용 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과세</p>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과세 이연 (예. 5년)</p> <p style="font-size: 8px; margin-top: 5px;">단, 세액 선정 기준 시점은 플립 당시</p>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8px;">대상</p>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 이슈 등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부담이 있는 바, 국가 전략 육성 분야에 선적용 및 효과 실증 고려 (예. 초격차 10대 분야)</li> </ul> </td> </tr> </table>	As-Is	To-be 개선 방향성	<p style="font-size: 8px;">‘창업가 대상’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창업가 제외 (VC/개인 투자자만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창업가 포함</p>	<p style="font-size: 8px;">적용 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과세 이연 (예. 5년)</p> <p style="font-size: 8px; margin-top: 5px;">단, 세액 선정 기준 시점은 플립 당시</p>	<p style="font-size: 8px;">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 이슈 등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부담이 있는 바, 국가 전략 육성 분야에 선적용 및 효과 실증 고려 (예. 초격차 10대 분야)</li> </ul>
As-Is	To-be 개선 방향성									
<p style="font-size: 8px;">‘창업가 대상’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창업가 제외 (VC/개인 투자자만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창업가 포함</p>									
<p style="font-size: 8px;">적용 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e0b2;">과세 이연 (예. 5년)</p> <p style="font-size: 8px; margin-top: 5px;">단, 세액 선정 기준 시점은 플립 당시</p>									
<p style="font-size: 8px;">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 이슈 등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부담이 있는 바, 국가 전략 육성 분야에 선적용 및 효과 실증 고려 (예. 초격차 10대 분야)</li> </ul>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

-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가 1) 국내 플립 시 적용 이후 해외에서 가능 여부, 2) 해외 주식 적용 가능 여부 등 특례법의 명확화 필요
- 이스라엘은 플립 시 명확한 ‘면세’로 명시; 플립 이후 해외 역시에는 명확한 ‘과세’로 명시하고 있어 스타트업/투자자의 혼선 최소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2) 이스라엘 세법 Section 104B(a); 3) 연방세법 제1202조 a항; 5년 이상 보유한 스타트업 주식 매각 시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 특례 존재; 4) 법무법인 미션 검토 의견; 출처: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28

24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1. 외국인 창업/진출 지원**

이슈 진단  
**외국인 창업가 지원은 '정부 주도' 운영되나 선도국들은 '민간 역할' 강조;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선도국 대비 규모/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적**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b>외국인 창업가 선발/지원 (비자 연계)</b>	<p><b>OASIS (정부 주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부 산하 외국인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비자 연계</li> </ul>	<p><b>French Tech 비자 '민·관 연계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창업 시, 정부 공인 민간 투자사가 창업 비자 발급 지원</li> </ul>	<p><b>EntrePass 비자 '민·관 연계 프로그램 1)</b></p>	<p><b>Innovator Founder 비자 '민간 기관 2)'의 심사/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 평가를 민간 기관이 진행</li> </ul>								
<b>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b>	<p><b>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b></p> <table border="1"> <tr> <td>단기 교육&amp; 상금</td> <td>~270개 선발 (18~22 주) 업체당 최대 ~\$120K 지급</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 지원 보조금/멘토링 mix 프로그램 (16~)</li> <li>상위 Top30 대상으로 지원금, 사무공간 등 후속 지원</li> </ul>	단기 교육& 상금	~270개 선발 (18~22 주) 업체당 최대 ~\$120K 지급	<p><b>Innov'up</b></p> <table border="1"> <tr> <td>장기 보조금 (R&amp;D 지원금)</td> <td>~1천개 선발 (17~20 주) 최대 ~€500K</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지역(일드프랑스 3)) 정착 희망 해외 스타트업 보조금 지원 (18~)</li> <li>선정 시 사업 지원금 제공</li> </ul>	장기 보조금 (R&D 지원금)	~1천개 선발 (17~20 주) 최대 ~€500K	<p><b>Singapore SG Tech</b></p> <table border="1"> <tr> <td>장기 보조금 (R&amp;D 지원금)</td> <td>N/A 최대 ~\$500K</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기반 장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17~)</li> <li>POC/POV 4) 선정 시 1~3년 걸쳐 기술 개발 지원금 제공 - 지원금 50%는 자본투자 5)</li> </ul>	장기 보조금 (R&D 지원금)	N/A 최대 ~\$500K	<p><b>Global Entrepreneur Programme</b></p> <table border="1"> <tr> <td>장기 교육/멘토링</td> <td>300개 선발 (19~22 주) 제반 실비 지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03~)</li> <li>선정 시 비자/멘토링/투자자 교류 등 현지 정착 지원 (보조금 부재)</li> </ul>	장기 교육/멘토링	300개 선발 (19~22 주) 제반 실비 지원
단기 교육& 상금	~270개 선발 (18~22 주) 업체당 최대 ~\$120K 지급											
장기 보조금 (R&D 지원금)	~1천개 선발 (17~20 주) 최대 ~€500K											
장기 보조금 (R&D 지원금)	N/A 최대 ~\$500K											
장기 교육/멘토링	300개 선발 (19~22 주) 제반 실비 지원											

1) 싱가포르 정부 공인 VC/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최소 투자액 SGD100K) 혹은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발; 2) Investors Limited(초기 스타트업 지원 중심의 벤처투자사), UK Endorsing Services(컨설팅 및 투자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Innovator International(사업 지원 목적의 기업가 커뮤니티); GEP는 정부 기관으로 제외; 3) 파리 및 근교 지자체로 구성된 프랑스 행정구역(프랑스 인구의 ~18.8% 거주); 4) POC: Proof of Concept(관심 단계), Proof of Value(상업화 단계); 5) 경부기 신주인수계약 방식으로 투자하며, 회사 지분의 최대 49%까지 확보 가능; 출처: 문헌 조사

30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1. 외국인  
창업/진출 지원**

개선 방향성  
**외국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 '밀착 액셀러레이팅',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외국인 창업가 대상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전제/요건** 한국 내 사업 진출 의지가 우수한 업체 대상으로 국내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장기 지원 강화

		As-Is	To-be 개선 방향성
정착 지원 강화	방식	교육/멘토링 & 보조금 mix (상금 & 생활비 성격 보조금)	교육/멘토링 (밀착 지원) 보조금 위주 (R&D 지원금)
	기간	단기 지원 (3-6개월)	장기 지원 (1년 이상)
참가사 선별 강화 (국내 진출 의무화)		자국 내 진출 미요구	자국 내 진출 의무화

- 한국 정부는 최근 '스타트업 종합대책' 통해 'KSGC'를 홍보 목적 창업경진대회에서 외국 창업가 정착 프로그램으로 개편 고려
- 영국은 Dealmaker가 선발 업체 대상 '밀착 멘토링'을 1년 이상 지원
- 싱가포르는 프로그램 KPI를 '성공 프로젝트 비중'으로 설정하고 1~3년 장기로 R&D 보조/지원하며 실제 성과 향상에 주력
- 한국은 프로그램 참가 시 '한국 내 사업 진출'을 의무화하지 않아, 프로그램 종료 이후 소수 업체만 한국 잔류
-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은 지원자 선발 시 자국 내 창업을 의무화하여 적격 대상자 위주로 수혜를 받도록 운영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tartup Grand Challenge); 출처: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31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2. 해외  
창업/진출 지원**

국내 현황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부처 별 지원 커버리지가 일부 중복;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에 혼선 야기**

	해외 창업/진출 교육	전략 수립	현지 실무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K-스타트업 센터 사업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K- 글로벌프로젝트)	융합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K-Global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해외 IT 지원센터 운영
		KIC 운영 사업	
코트라 (산업부 산하)		이동 KOTRA 서비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출처: 중소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nterprise Singapore; 문헌 조사

“ 부처 간에도 사업들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림. 이걸 지원했다가 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안 되진 않을까 걱정함.”  
現 R사 CEO

“ 중기부, 과기부, 코트라에 대사관도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행사 진행... 부처 간 행사 경쟁보다,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춰 지원 체계 단순화 했으면...”  
現 E사 CEO

“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32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2. 해외  
창업/진출 지원**

개선 방향성

**해외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실효성 증대, 양질의 스타트업 선정,  
재정의 효율화 모색;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운영 체계 통합화가 필요함**

전제/요건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방향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퀄리티 및 운영 체계 개선

**To-be 개선 방향성**

**실질적 & 실효적인 프로그램 퀄리티의 제고**

‘국가별 특화’ & ‘장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 & 현실성 강화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실질 서류 & 요건 체계로 양질의 스타트업 선정

낭비성 지원 최소화 방향, 재원의 효율화 모색

- [국가별 특화] K-스타트업 센터는 8개 국가 특화 교육으로 보다 확대 필요; 싱가포르는 ~20개 특화 교육 세션 운영;
- [장기 운영] 장기 관점에서 운영 필요; 싱가포르의 주관 VC 판단에 따라 자율 운영
- 성장 잠재력 위주, 실질적인 서류 및 요건 체계로 전환하여 선정 퀄리티 개선; 싱가포르 GIA는 ‘투자 유치 및 매출 이력’과 같은 실질 역량 위주 요건 확인 및 서류도 참여 목적 및 업체 별 pitch book 첨부 정도 핵심 위주로 간소화
- 한국도 해외 진출 경험 심사위원 마련 필요; 영국 GEP는 해외 진출 경험자가 심사 주도
-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정 확대가 필수적; 단, 프로그램 간 연계 통해 일부 중복은 효율화하여 국내 인큐베이팅 소요되는 재정 총액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프로그램 운영 체계 통합화**

프로그램  
별 독립  
운영

→

(단/중기)

메인-서브  
형태로  
이원화  
(메인은 컨택 중심)

→

(장기)

단일  
프로그램  
집중화

- 싱가포르는 분산된 프로그램별 인력 및 자원을 GIA 단일로 통합해 퀄리티 극대화 및 탐색 난이도 최소화
- 단, 일괄 통합의 행정 부담이 있어 타 프로그램 연결하는 ‘메인’ 프로그램 단/중기 운영도 고려 가능

“ 지원 집중 목적으로, '18년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오피스를 'Enterprise Singapore'로 통합”  
前 GIA 프로그램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The 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출처: Enterprise Singapore; 중소기업창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TRA;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33

2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A** 비효율적 &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

**A1** 외국인인 국내 창업 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A2**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A3**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A4** 해외 진출 시 과도한 규제 완화 (예.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

**B** 정부-민간 연계 확대 통해 실질적 지원 가능한 제도와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제고

**B1**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퀄리티 개선

**B2**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개선

**C**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인식 및 관련 인프라 개선

**C1**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

**C2**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고도화·활성화 (예. 웹사이트 내 외국인 서비스 확대, 네트워킹 허브 고도화 및 실질적인 외국인 위한 커뮤니티 확대)

34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C2. 관련 인프라 고도화		캠퍼스/컨벤션 이슈 진단	
		국내 캠퍼스/컨벤션은 정부 주도&민간 연계로 소규모인 반면, 선도국가는 민간 주도로 대규모 예산&전문성 기반 규모/퀄리티에서 경쟁 우위			
		한국		선도 국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b>각 기관 산하 캠퍼스</b> • 정부 기관 및 대기업 산하, 국내 ~10개 이상 캠퍼스 운영 -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구글, 한화 등		<b>Station F</b> • 프랑스 사업가 <sup>2)</sup> 기획 하 조성된 대규모 민간 캠퍼스 • 입주 창업가의 약 30%는 외국인 (~50개 출신 국가로 구성)	
	예산	~10-65억 원 <sup>1)</sup> (서울창업허브 기준)		~110억 원 (€8M)	
	스타트업 입주 규모	10~130개사		1,000개사+	
글로벌 스타트업 컨벤션	글로벌	<b>NextRise</b> • KITA & KDB 주관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19~)	<b>컴업</b> • 중기부 지원 하 민간 위탁 운영 스타트업 행사 (*19~)	<b>Viva Tech</b> • 프랑스 대기업 주최 유럽 최대 IT 행사 (*16~)	<b>Slush</b> • 민간 운영 북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08~)
	예산 <sup>5)</sup>	15억 원	24억 원	~140억 원 (€10M)	~170억 원 (€12M)
	스타트업 참가 규모	17개국 450개사	53개국 960개사	50개국 2,400개사	창업가 4,600명
				<b>Switch</b> • 싱가포르 기업청 주최 네트워킹 행사 (*16~)	N/A
					(캠퍼스 통합) 2,300개사+ <sup>4)</sup>

1)서울창업허브 공역과 청중의 '23년도 '운영업체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합산; 2)Free Mobile CEO 'Xavier Niel'이 약 2억 5,000만 유로 투자; 3)Cambridge Innovation Center; 4)8개 캠퍼스의 클라이언트 수 합산; 5)기준년도: NEXTRISE/컴업 '22년, Vivatech '16년, Slush '19년; Note: 주요 지표의 기준년도는 NextRise/컴업/VivaTech '23년, Slush/SWITCH '22년; 출처: 문헌 조사

37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C2. 관련 인프라 고도화		캠퍼스/컨벤션개선 방향성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전문성 향상 가능한 네트워킹 토대 마련			
		<b>전제/요건</b> 민간 리드하여 자율성&전문성 극대화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되, 정부 지원의 선별/집중화가 필요			
캠퍼스의 민간 주도도 전환 필요 운영 주도 민간 전환 소수 핵심 허브로 역량 및 자원 집중	As-Is	정부 주도 민간 자생적인 수익 구조 및 전문성 마련할 때까지 단계적 전환 모색	To-be 개선 방향성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허브로 집중	<b>정부 역할 관점</b> • 정부 지원/예산을 소수 잠재력 있는 네트워킹 허브에 집중하고 점차 민간으로 운영 이양;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하고 아시아 허브 역할 가능한 양/질적 성장 모색 - 소수 허브로 집중하여 네트워킹 효과 및 맞먹 다양성 극대화
				<b>민간 역할 관점</b> • 미국에서는 CIC, 프랑스는 Station F 등 민간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캠퍼스가 육성 및 활성화 • 민간 자생적인 수익 모델 및 전문성 구축 가능한 체계 마련이 핵심 - CIC는 민간 주도로 임대 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퀄리티 향상과 정부기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 캠퍼스로 성장함 - Station F는 자체 수익 모델 구축하고 잉여 수익은 퀄리티 향상에 재투자하며 신규 유입 확대	<b>자체 수익 모델 구축 및 전문성 제고</b> “ Station F는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섹터 별로 여러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유치, 전문적인 퀄리티의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스테이션 F 前 스타트업 멘토

출처: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38

<h2 style="margin: 0;">목차</h2>	<p><b>1</b>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및 한국의 지향점</p> <p><b>2</b> ‘글로벌 개방성’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 도출</p> <p style="margin-left: 20px;">A. 절차와 규제 완화</p> <p style="margin-left: 20px;">B.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제고</p> <p style="margin-left: 20px;">C. 인식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p> <p><b>3</b> 개선 방향성 요약 및 실행 체계</p>
--------------------------------	--

<p><b>3</b></p> <p style="font-size: small;">개선 방향성 요약 및 실행 체계</p>	<h2 style="margin: 0;">글로벌 개방성의 개선 과제 요약 및 담당 주체</h2>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담당 주체</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상</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정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민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스타트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자</td> </tr> </table>	담당 주체		대상		공공/정부	민간	스타트업	투자자									
담당 주체		대상																	
공공/정부	민간	스타트업	투자자																
To-be 지향점	민간 연계 기반으로 국가간 경계 없이 창업/성장/역시 지원하는 글로벌 Top 스타트업 생태계																		
<p><b>절차/규제 완화</b></p>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법인 설립 시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보다 명확화 필요 (상법상 부채하나 주무 기관은 일정금액 요구)</li> <li>• 내국인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계약 완화</td> <td>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창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취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td> </tr> </table>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국내외 투자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td> <td>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아웃-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td> </tr> </table>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물류시안도스주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 &amp; 특정 요건 충족 기업 국한하여 확대 가능</li> <li>•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요건의 명확화 필요</li> </ul> </td> </tr> </table>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법인 설립 시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보다 명확화 필요 (상법상 부채하나 주무 기관은 일정금액 요구)</li> <li>• 내국인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li> </ul>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계약 완화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창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취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td> </tr> </table>	창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국내외 투자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아웃-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td> </tr> </table>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물류시안도스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 &amp; 특정 요건 충족 기업 국한하여 확대 가능</li> <li>•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요건의 명확화 필요</li> </ul>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법인 설립 시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보다 명확화 필요 (상법상 부채하나 주무 기관은 일정금액 요구)</li> <li>• 내국인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li> </ul>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계약 완화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창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취업 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td> </tr> </table>	창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창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의 실질적 역량 검증 목적, ‘학력’ 등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고, 민간 연계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 고려</li> <li>• 동상적 여건 고려 시, 비자 갱신은 투자&amp;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고, 동반 비자의 부양 능력 증명도 간소화 필요</li> </ul>																		
취업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요건 중 학력/경력 기준은 최근 ‘스타트업 종합 대책’ 기조 및 싱가포르 사례 참고 시 다면 평가로 완화 필요</li> <li>• 고용주 계약 요건은 E-7-1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 필요 (싱가포르 내 고용주 계약 부재 사례 고려)</li> </ul>																		
국내외 투자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아웃-바운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td> </tr> </table>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VC가 국내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VC 대상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투자 라이선스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li> <li>• 국내 VC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 될 수 있도록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li> </ul>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물류시안도스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 &amp; 특정 요건 충족 기업 국한하여 확대 가능</li> <li>•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요건의 명확화 필요</li> </ul>																		
<p><b>프로그램 퀄리티 제고</b></p>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국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 ‘밀착 액셀러레이팅’,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외국인 창업가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강화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구성/운영의 실효성 증대,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퀄리티 개선 가능;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 통합화가 필요함</li> </ul> </td> </tr> </table>	국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 ‘밀착 액셀러레이팅’,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외국인 창업가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강화 필요</li> </ul>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구성/운영의 실효성 증대,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퀄리티 개선 가능;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 통합화가 필요함</li> </ul>														
국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 ‘밀착 액셀러레이팅’,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외국인 창업가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강화 필요</li> </ul>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구성/운영의 실효성 증대,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퀄리티 개선 가능;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 통합화가 필요함</li> </ul>																		
<p><b>인식/인프라</b></p>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인식 개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개방성 확대 관련 일반 대중과 공공 &amp; 민간 기관 내에서도 인식은 양분된 상황; 관련 공공 &amp; 민간 기관에서도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어,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관련 인프라의 활성화&amp;고도화</td> <td>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외국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프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td> </tr> </table> </td> </tr> </table>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개방성 확대 관련 일반 대중과 공공 &amp; 민간 기관 내에서도 인식은 양분된 상황; 관련 공공 &amp; 민간 기관에서도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어,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li> </ul>	관련 인프라의 활성화&고도화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외국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프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td> </tr> </table>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개방성 확대 관련 일반 대중과 공공 &amp; 민간 기관 내에서도 인식은 양분된 상황; 관련 공공 &amp; 민간 기관에서도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어,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li> </ul>																		
관련 인프라의 활성화&고도화	<table border="1" style="font-size: x-small;">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외국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인프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td> </tr> </table>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민간 주도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로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amp;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li> <li>• 2) 캠퍼스&amp;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 추진</li> </ul>																		

3

개선방향요약  
및 실행 체계

각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들은 구심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 추진이 중요;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이 필요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담당 주체  
각 개선 과제 별로 담당 주체가 상이하여 전담 실행 조직 체계가 필요

	과제	공공/정부			
		중기	법무	기재	등
절차/규제 완화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국내외 투자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클럽)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해외 창업/진출 지원 개선				
인식/ 인프라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인프라의 활성화&고도화				

 French Tech Mission - (프) 스타트업 정책 전담 조직 사례  
디지털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고  
정책 실행을 주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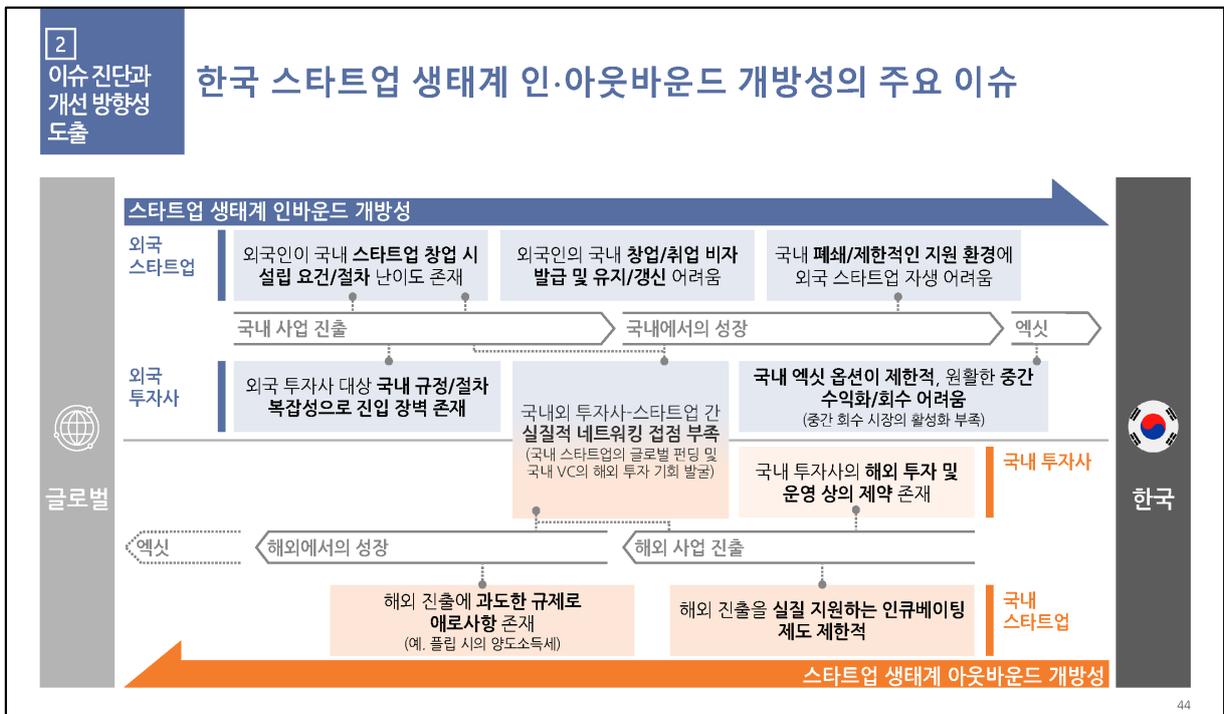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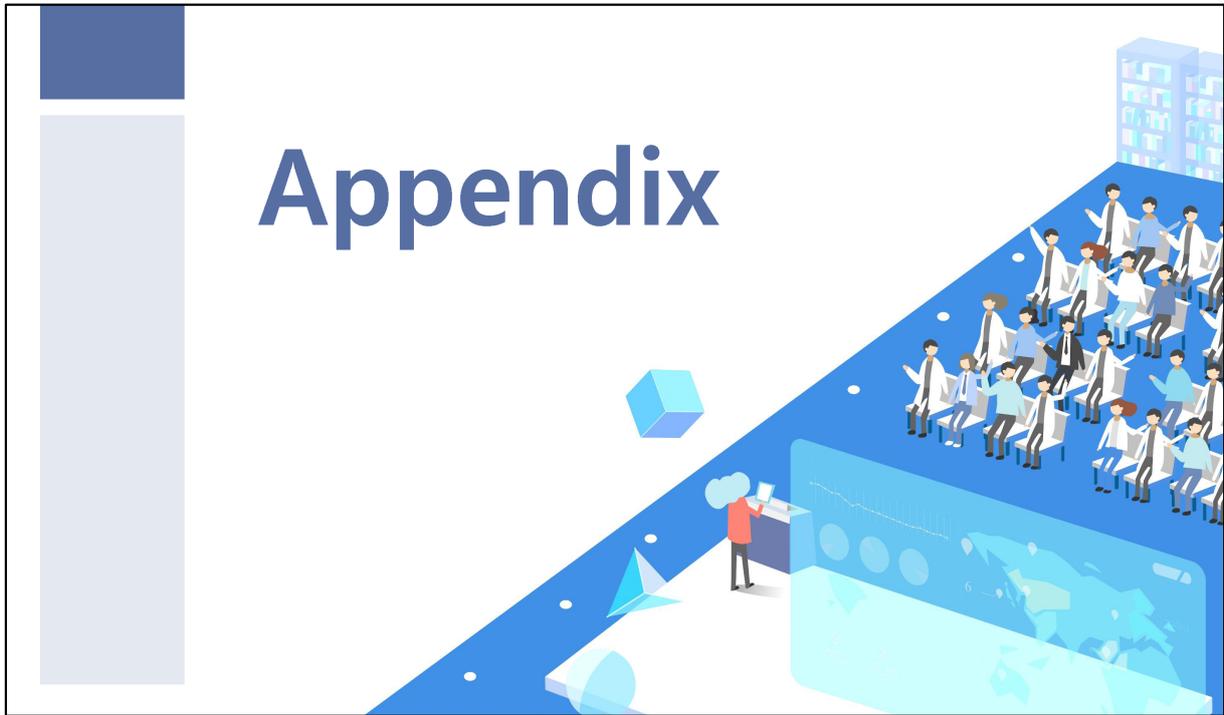
\*경제재정부 산하 디지털주권부 (the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ial and Digital Sovereignty); 국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유사; \*\* 경제재정부 산하 디지털주권부 산하 Digital Transition and Telecommunications 부서 장관 (Deputy Ministers); \*\*\*18~21 Kat Borlogan (일명 전 벤처캐피탈 'Techstars' 운영), \*21~ Clara Chappaz (일명 전 'Vestiaire Collective' CEO); 출처: La French Tech; 문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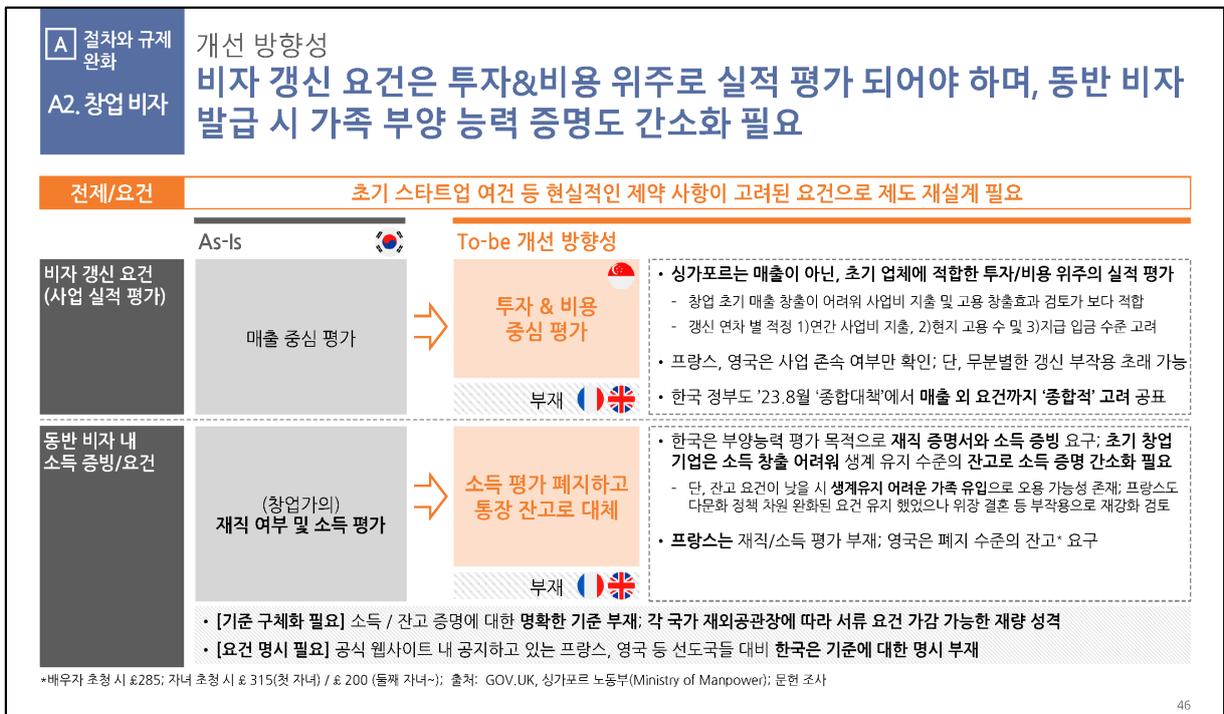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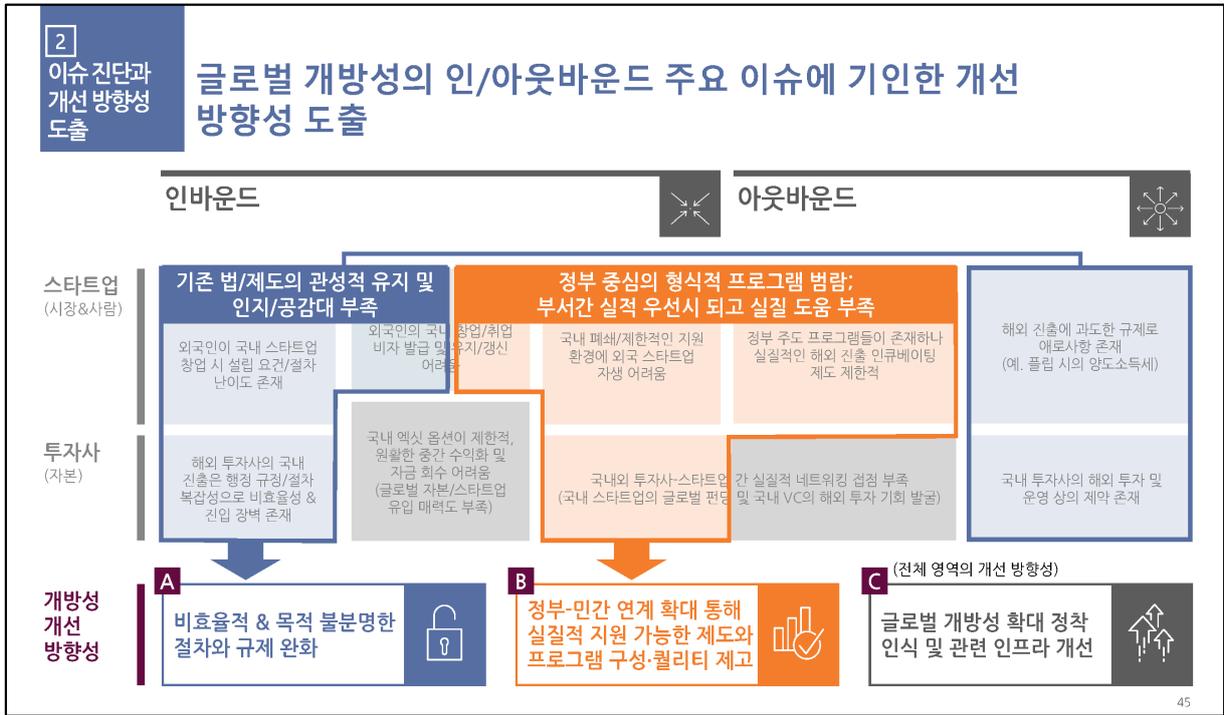
스타트업 코리아!

감사합니다.







A 절차와 규제 완화

선도국 사례

**싱가포르**는 1) 연간 사업비 지출액, 2) 현지 고용 인력, 3) 지급 임금 기반으로 실적 평가

갱신 시 핵심 요건

갱신 연차 (년)	연간 최소 사업비 지출액 (SGD) ⊕	최소 현지 고용인원 수 (명) ⊕	최소 월 지급 임금 기준 (SGD)
1	0	0	3,900
2	100K	1	
4	200K	2	
6	300K	3	
8	400K	4	
10	700K	5	4,700
12	750K	6	
14	800K	7	
16	900K	8	
18	1M	9	
20	1.15M	10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47

A 절차와 규제 완화

Back-up: 제출 서류의 종류 많고, 다수 기관에서 발급 필요해 서류 구비의 부담 존재; 학위/법인설립 선행 요건 폐지 및 민간연계 시 간소화 가능

개선 과제 추진 시 간소화 가능 영역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b>총 발급 서류/ 기관</b>	12종 ~8개 기관	~6종 ~1개 기관	~10종 ~6개 기관	~6종 ~4개 기관
<b>신분 확인 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여권</li> <li>• 표준규격사진1장</li> <li>• 학위증명서 or 관계기관장 추천서</li> <li>• 외국인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여권</li> <li>• (Optional) 영문 Resu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여권</li> <li>• 여권용 증명사진</li> <li>• 비자 or 프랑스 거주 허가</li> <li>• (일부다처제 국가 대상) 프랑스 내 일부다처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여권</li> <li>• 혹은 신분 증명 가능 서류</li> <li>• 영여공인성적 (B2)</li> <li>• (필요 시) 알력 검사 결과지**</li> </ul>
<b>체류 증명 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지 입증서류</li> <li>  - 임대차 계약서</li> <li>  - 숙소제공확인서</li> <li>• 체류비 입증서류</li> <li>  - 통상 입출금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or 숙소 제공자</li> <li>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지 증명서</li> <li>  - Rent/호세 영수증, 숙소제공확인서</li> <li>거주 허가증 관련 납세 증명서</li> <li>법정 최저임금 조건 충족 여부 증명 (€21,5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거래 내역서</li> <li>  - 최소 £1,270, 28일 보유 (영국 12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li> </ul>
<b>사업장 운영 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tional) 등록된 회사 프로필</li> <li>  - 법인 설립할 경우 제출 (법인 설립 필수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tional) 등록된 회사 프로필</li> <li>  - 법인 설립할 경우 제출 (법인 설립 필수 아님)</li> </ul>	
<b>사업 역량 증명 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제 해당 항목 입증 서류</li> <li>• 지식재산권 입증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창업 이민국센터</li> <li>• 특허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li> <li>• 공인 기관의 지원 증명서</li> <li>  - VC 투자 입증 서류</li> <li>  - AC/인큐베이터 지원 입증 서류 &amp;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 간 연관성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혁신성에 대한 정부 인증서</li> <li>• 공인 기관의 지원 증명서</li> <li>  - French Tech Visa 관련 파트너 기관 프로그램 선발 or French Tech 생태계 내 프로그램 선발 증명</li> </ul>

\*Préfet de la région Île-de-France;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0여개 국가 출신자; 출처: OASIS: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Business France; Gov.UK

48

34

A 절차와 규제 완화		이슈 진단	
A3. 해외 투자 제약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진출 시에는 투자/출자 제한 등 제약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선도국 대비 엄격하게 제한 되는 상황	
		한국	싱가포르
규제	투자/출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투사는 운용액 40%를 '국내 창업기업'<sup>1)</sup> 대상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용액 배분 관점의 별도 제한 없음</li> <li>- 단, 미국은 Outbound Investment Program<sup>2)</sup> 의거 특정 지역/기술 대상 투자 제한 존재</li> </ul>
	모태펀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결성 계약 상 총 모집액 60% 이상 '주목적' 투자 필요</li> <li>- 주목적에 따라 해외투자 제한: 대부분 국내 위주 목적</li> </ul>	
	지분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투사는 경영지배 목적으로 해외 투자 시 7년 내 액식/회수 필수; 해외 지사 설립도 제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투자 시의 지분율 제한 규제 부재</li> </ul>
	라이선스 범위/규정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투사 20억 원 등 최소 자본금 요건</li> <li>2명 이상 전문인력 고용 (변호사, 회계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자본금 요건 부재<sup>3)</sup></li> <li>싱가포르 MAS licensed 인력 고용 (2명) &amp; 미국 SEC licensed 인력 고용 (2~3명)</li> </ul>
8. IPO 관련	개발/운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및 스크리닝/투자/관리 경험 및 인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제적 제약이 없으며 해외 인력 다수 보유하여 인력/경험 확보 용이</li> </ul>
	외국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업계획서, 송금처 정보 서류 및 기타 추가 서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크리닝 목적, 송금처 정보 서류 필요</li> <li>- 일부 투자건 대상 투자 목적 소명 필요</li> <li>- 송금 이후 사후관리 목적 세금신고서 필요</li> </ul>
	출자 계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공공LP는 최소 출자 계약의 변경이 어려워 타 LP 기준과의 조율 난이도 높음</li> <li>- 공공LP의 '주목적' 투자 대상/비율은 사후 조정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미국 모두 공공LP 편당이 제한적이어서 조율 난이도가 낮음</li> <li>- (싱가포르) 대규모 공공LP의 출자 기회에도 불구하고 민간LP 선호; 운영 난이도가 더 낮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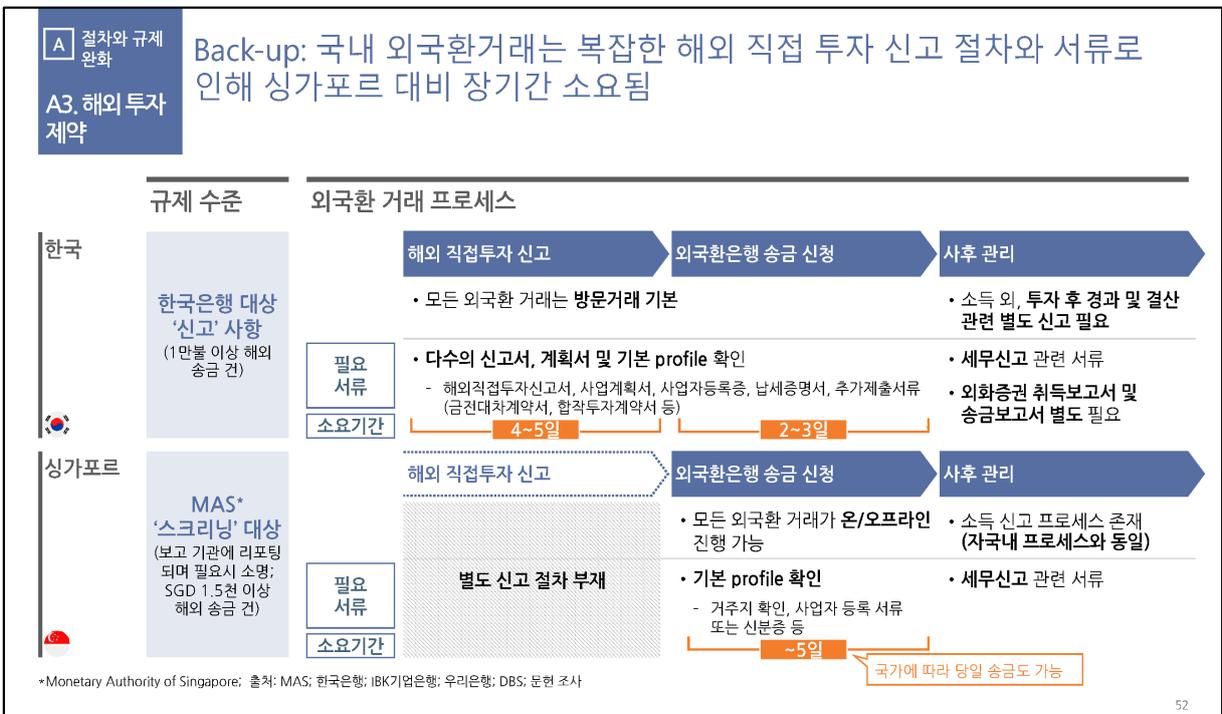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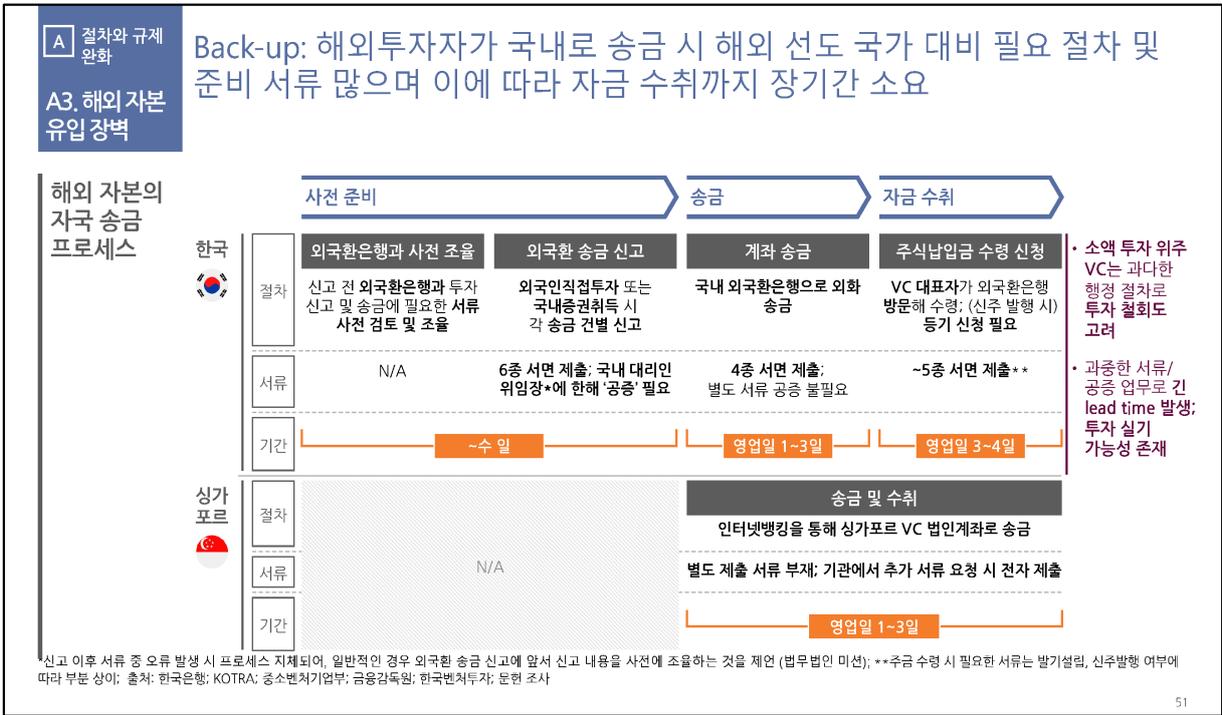
1) 최초 창업일 기준 3년 미만 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1 조 3항); 2) '23년 8월 11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법령, Countries of concern 대상 타겟 산업 관련 투자 제한; 3) 싱가포르의 경우, VCFM 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White House;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49

A 절차와 규제 완화		Back-up: 해외 VC의 국내 벤처투자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요건 및 필수 전문인력 요건은 선도 국가 대비 요구 수준이 높음			
A3. 해외 자본 유입 장벽		한국	싱가포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VCFM**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창업자의 선발, 교육,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투자 활성화</li> </ul>
자본금 최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 자본금 1억 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 자본금 20억 원 이상</li> <li>차입 비중 2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 자본금 100억 원 이상</li> <li>주식회사 형태로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 자본금 요건 부재</li> </ul>
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VICS) 내 서류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 혹은 서면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 혹은 서면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S 온라인 포털로 제출</li> </ul>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신청서 외 6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신청서 외 12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신청서 외 6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신청서 (Form - 1V) 외 4종</li> </ul>
투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3년 총 투자 규모 40% 이상 '초기창업자' 대상 투자</li> <li>- '초기창업자'는 &lt;3년 창업으로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3년 총 투자 규모 40% 이상 창업자/벤처기업 대상 투자</li> <li>- 벤처기업은 유치 투자금액 5천만원, 총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이 &gt;10%인 중소기업으로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 기업 등 대상 투자</li> <li>의무투자비율 요건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투자 규모 80% 이상 벤처기업 (설립 10년 이내) 대상 투자</li> </ul>
전문 인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li> <li>- 기술자, 변호사 등 국내 전문직</li> <li>- 이공·상·경제·법·의학·인문·사회;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종사한 자</li> <li>- 학사학위 소지; 해외 법인에서 창업투자회사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3년 수행한</li> <li>- 전자의 등기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자</li> <li>- 상장법인 창업자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분야나 기술분야 해당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li> <li>- 경영/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 대학에서 경영/기술 분야를 강의하는 주교수 이상의 교원</li> <li>- 국내 전문직(변호사, 법리사, 회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근 인력 2인 이상 확보</li> <li>싱가포르 거주 정규직 외 별도 요건 및 제약 부재</li> </ul>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기술 및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개발협회; 싱가포르 금융관리국; 싱가포르 기업청; 문헌 조사

50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1. 외국인  
창업/진출 지원**

Back-up: 선도국은 해외 스타트업 정착/성장 지원 위한 장기 프로그램  
위주, 한국은 멘토링&보조금 mixed된 단기 창업경진대회 운영 중

	한국-KSGC 	영국-GEP 	프랑스-Innov'up 	싱가포르-SG Tech 
	단기 외국인 창업경진대회 (교육/멘토링 & 보조금 mixed 성격)	장기 외국인 정착/성장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장기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b>업체 선정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진출이 필수 요건 아님</li> <li>- 한국 문화 경험 목적 참가자 다수</li> <li>서류 심사 후 10분 내외의 오디오 기반 검증 (상대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법인 설립 및 창업자의 영국 내 거주를 필수 요구</li> <li>Dealmaker* 및 운영위원회 심사 (절대평가); ~2달간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드프랑스 내 법인/사업장 설립 필수 요구</li> <li>혁신/경제성 위주 평가(절대평가)</li> <li>- 매년 ~500개 업체 선발**; 상시 모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 내 법인 설립 및 핵심 사업 운영 필수 요구</li> <li>3차례 사업 계획 심사(절대평가)</li> <li>- 내부 심사 → 기술 검증 → 패널 발표</li> </ul>
<b>세부 운영 (단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액셀러레이터 신규 선발; 업체 별 10곳+ 창업팀 전담</li> <li>3개월 간 액셀러레이팅 및 ~1천만원 상당의 생활비 지원</li> <li>엄격한 출결로 내부 프로그램 외, 외부 네트워킹 기회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통상부 소속 기술/지역 특화 전문가인 Dealmaker 배정</li> <li>전 창업 과정 1년 간 밀착 지원</li> <li>- 비자 발급, 법인 설립, 투자 유치, R&amp;D 고도화 등 전 과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7-40억원 규모)</li> <li>- 지원은 최대 7억, 대출은 40억원</li> <li>- 인건비/시설투자비 등 사업 운영비 명목 지원 (발생 비용의 25~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년 장기 지원 프로그램; Milestone 달성 시 지원금 제공</li> <li>- (1) POC 프로그램(~18개월, 3억원+): 개념 증명 단계에 필요한 개발/연구 자금 지원</li> <li>- (2) POV 프로그램(~30개월, 6억원+) : 개념 증명에 입증된 기술의 추가 개발/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li> </ul>
<b>후속 지원 (장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모데이 '상위 Top 30 업체'에 3개월 생활비 및 사업 지원</li> <li>기술창업비자 접수 조건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킹 및 교육 목적 'GEP Alumni Academy' 운영</li> <li>비자 발급 3년 후 영주권 신청 권한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 'PRBC'*** 구성하여 네트워킹 및 투자 기회 마련</li> </ul>	

\*Dealmaker: 영국 기업통상부 소속으로 기업의 선발, 투자,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담당자; \*\*21년도 이후 예산 50% 증가로 선발 규모 확대; \*\*\*the Paris Region Business Club; 출처: K-startup grand challenge; GEP: Région Ile-de-France 웹사이트; Startup SG; Expert Interview; 문헌 조사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2. 해외  
창업/진출 지원**

이슈 진단  
정부 주도 다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존재하나, 부처별 유사 프로그램이  
많아 혼선, 지원 대상 업체의 역량도 불분명, 제도적 실효성/전문성도 부족

	해외 진출 프로그램 활용 내 스타트업 pain-point	스타트업 VOC (선별적)
해외 진출 프로그램 지원-활용에의 주요 의견	<b>탐색 및 인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별 유사 프로그램 다수; 지원/확인 창구도 분산</li> <li>- 중기부, 과기부, KOTRA 등 기관에서 유사 프로그램 제공함</li> <li>- 지원 정보는 부처 사이트, 창업지원포털, 기업마당 등 분산</li> </ul>	<b>중복/유사 프로그램 양산; 재정 낭비</b> <p>"주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니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유사한 사업도 많아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하는지도 헷갈림"</p>
	<b>요건/ 서류 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효율적 서류 요구 및 달성 어려운 요건 설정</li> <li>- 서류 분량 제한 부재하나 사업계획서 15매 내외 권장*</li> </ul>	<b>지원 대상의 역량 불분명</b> <p>"사업계획서 분량 관련 상한이 없어, 분량 경쟁이 일어남; 프로그램 지원 시마다 똑같은 서류를 계속 재발급 받는 것도 비효율적..."</p>
	<b>심사/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인력의 관련 전문성 부족</li> <li>- 정부 관료, 창업 경험자, 투자심사역, 대기업 출신 중심이며, 상근 전문 평가단이 아닌 수시 모집 인력</li> </ul>	<p>"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보유한 평가 인력도 부족하거나, 스타트업을 이끌고 해외에서 사업 추진 해본 심사위원은 더욱이 부족함"</p>
	<b>프로그램 구상/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실무 관련 교육 세션 부족</li> <li>- 투자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등 전략 외적인 실무 교육 필요</li> <li>- 국가별 특화 교육 부족 (K-스타트업 센터 8개, 싱가포르 20개)</li> <li>해외 진출 전략 관련 멘토링 세션의 실효성 부족</li> <li>- 다소 이론적인 전략 다수로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 어려움</li> </ul>	<b>프로그램 전반의 실효성과 전문성 부족</b> <p>"VC 대상 피칭, IR 자료 제작 같은 비즈니스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없음... 우수한 기술 기업이 제대로 홍보 못해 투자 못 받는 경우도 있어 관련 교육 필요"</p> <p>"대기업 해외사업 담당자 등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 해외 진출 과정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멘토링/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다반사임... 스타트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그에 대한 이해 없이 현실성 부족한 조언만 듣다가 끝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공지 대비 상이/부족한 프로그램 운영</li> <li>- 예산 삭감, 프로그램 간소화, 형식적 행사 개최 등</li> <li>프로그램 기간 불충분 및 높은 재선정 난이도</li> <li>- 예,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은 총 14주 진행 이후 종료; '23년 사업 지원 요건 내 '19~22년 기 참여자는 불가 명시</li> </ul>	<p>"지원금을 1/3로 삭감한 경우도 있고, 단기 실적이 안 나왔다면 지원이 취소 된 적도 있음. 해외 VC 협업 프로그램이라 해놓고 단순 주선에 그쳐 협업이 안됨"</p> <p>"보통 1년만 지원하고 끝나서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짧음. 몇 개 업체를 참여 시켰을지만 관심 있고, 어떤 성과를 낳았는 지는 관심 없음"</p>

\*단, 동 15매 '연장' 조항은 무분별한 분량 경쟁이 존재해 '23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되며 최대 15매'로 수정; 출처: 스타트업 인터뷰; 문헌 조사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2. 해외  
창업/진출 지원

Back-up: 정부 주도인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구성의 전권이 VC에 있어, 유동적으로 기업 선정해 기업 특성과 상황별 맞춤 운영

		한국 (K-스타트업센터 사업, 중기부)		싱가포르 (Global Innovation Alliance*, 기업청)	
		프로그램 전반에 기관이 개입하며, 기업 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인 기간 및 운영 방식 적용		프로그램 운영 전권을 VC가 가지며 개별 기업 특성에 맞추어 VC가 기간 및 운영 방식 조정	
프로그램 구성	KPI 워크숍	참여 업체 간 네트워킹 로드맵 및 KPI 설정 현지 시장 교육 세미나	기관 현지 VC** 및 기관 협업	2주 고정	부재
	진출 준비	진출 전략 수립(멘토링) 파트너사 매칭	현지 VC 및 기관 협업	4주 고정	~8주
	현지 프로그램	이행 과정 점검 및 피드백 네트워킹 행사 데모데이	현지 VC	8주 고정	~24주
	성과 공유	대정부 성과 공유회	기관	1일	부재
	사후 관리	부재	부재	정기 후속 멘토링 Ad-hoc 비즈니스 미팅	현지 VC ~72주
선정 요건 및 방식	지원 자격	• 투자 유치 혹은 진출 희망 지역 수출 이력 보유	• R&D/시제품 생산 이력만 보유 시에도 가능		
	선발 업체 수	• 연 1회, 8개국 총합 60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 선발 업체 수 유동적 (명시적 상한선 부재)***		
	평가 방식	• 상대 평가	• 절대 평가 (VC 재량으로 기준 적용)		
	재지원 가능 여부	• 재지원 불가	• 재지원 가능		
	지원 국가 수	• 1개 국가 지원 가능 (2지망까지 기입하여 제출)	• 지원 가능 국가 제한 부재		

\*런던 프로그램 기준; \*\*23년 기준; \*\*\*VC별로 관리 가능한 업체 수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판단하며, 관리 capacity 한도 초과할 경우 모집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함; 출처: 중기부; 창업진흥원; Enterprise Singapore; 문헌 조사

55

B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B2. 해외  
창업/진출 지원

Back up: 한국은 프로그램 신청 시 요구 서류의 종류 및 서술 분량이 많음; 싱가포르는 온라인 신청서 및 발표 자료 1개로 단축해 준비 난이도 경감함

		한국 (K-스타트업센터 사업, 중기부)		싱가포르 (Global Innovation Alliance, 기업청)	
		10+종*	~5개 기관 관여	~2종*	0개 기관
사업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계획서</li> <li>계공 양식( 한글 파일)에 답변 작성하여 지원 사이트 내 파일 첨부</li> <li>18개 서술형 항목에 대해 문항 제한 부재</li> <li>사업 소개/ 지원 국가 관련 정보/ 프로그램 지원 관련 정보/ 팀 관련 항목 포함</li> </ul>	자체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계획서</li> <li>Google form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li> <li>3개 서술형 문항 외 모두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답변 작성</li> <li>개인 연락처/ 사업체 정보/ 사업 소개/ 지원 국가/ 프로그램 지원 관련 정보 항목 포함</li> </ul>	자체 구비
영문 발표 자료	• 영문 인터뷰용 발표 PPT	자체 구비		• 영문 Pitch deck으로 갈음	자체 구비
기타 자유 제출	• Pitch deck, 사업 관련 홍보 비디오 등	자체 구비		• 투자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등	자체 구비
신분 증빙	• 대표자 및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	자체 구비			
사업장 증빙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홈택스			
창업기업 증빙	• 창업기업확인서 등	중기부			
투자 이력 증빙	•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자체 구비	은행		
수출 이력 증빙	• KITA 수출실적 증명, 수출신고필증 등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기타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유지동의서</li> <li>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원실천 선언문</li> <li>공동대표 동의서</li> </ul>	자체 구비			

\*자유 제출 자료 제외; 출처: 중기부, Enterprise Singapore; 전문가 인터뷰

56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C2** 관련 인프라 고도화

### 캠퍼스/컨벤션|선도국 사례

## CIC는 민간 주도로 임대 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퀄리티 향상과 정부기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 캠퍼스로 성장함

(Cambridge Innovation Center)  
CIC 입주사 수

연도	입주사 수
'99	35
'04	75
'08	170
'13	500
'16	1,000
'23	2,300

글로벌 8개<sup>1)</sup> 캠퍼스

- 사무공간 임대를 통한 운영비 확보
  - 대여 형태별 다양한 요금제 (월\$300~\$3,600<sup>2)</sup>)
- 특히 실험실 대여로 기술 기반 기업 유입 촉진
  - 주요 기구, 보호 장비, 폐기 시설 제공

**수익 모델 구축**

**네트워킹 퀄리티 향상**

- 매주 목요일 네트워킹 행사 Venture Café 정기 주최
  - 글로벌 11개 도시<sup>3)</sup> 운영
  - 운영 전담 비영리조직 구성 (Venture Café Foundation)
  - 매주 특정 주제 하 개최, 패널 토론/데모데이/멘토링 등 진행

**정부기관 협력**

- CIC 프로그램에 정부 재정/행정 지원
  - 예. JETRO-보스턴 캠퍼스 파트너십 (미국 진출 지원)
- CIC 내 정부기관 입주로 스타트업-정부 교류의 장 역할
  - 도쿄도청 파견사무실, 한국 C&D 센터<sup>4)</sup> 등

~1만개 누적 입주사 ('99~)  
\$17B 입주사 투자유치 누적  
4천건+ 연간 글로벌 이벤트

1) 북미 Cambridge('99 설립), Boston('14), St. Louis('14), Philadelphia('18), Providence('19), 유럽 Rotterdam('16), Warsaw('20), 아시아 Tokyo('20); 2) 필라델피아 캠퍼스 요금제 예시: Shared lab \$3,300/bench/mo., Private lab \$3,600/bench/mo., Coworking space \$350/person/mo., Private office \$950/mo.; 3) 도쿄도청은 스타트업-정부 간 협업 강화 위해 CIC 도쿄도청 파견 사무실(TMG Dejima) 입주;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위해 CIC 게이브리지 내 'C&D 이노베이션센터'개소; 4) 8개 캠퍼스 및 Phoenix, Sydney, Monterrey; 출처: CIC, 문헌 조사

57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C2** 관련 인프라 고도화

### 캠퍼스/컨벤션|선도국 사례

## Back up: 프랑스 Station F는 민간 주도로 유수의 파트너사와 입주 스타트업에 투자해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프랑스 Station F 핵심 성공 요인

**순수 민간 투자**  
정부 개입 없는 세계 최대 규모 독립적인 민간 생태계 구축

**자생적 수익 구조 확보**  
데스크/아파트 임대 수익을 통해 연간 ~€8M 운영비 충당 후 수익 확보

**민간 파트너 연계 고 퀄리티 프로그램 운영**  
섹터 별 전문성 있는 파트너사 선별해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제공  
파트너사의 KPI\* 미달 또는 신규 분야 수요 증가 시 교체

**파트너사 연계, 우수 입주사 대상 투자**  
파트너사/Station F가 각 전문투자 팀 운영하며 우수 업체 대상 투자 집행\*\*

신규 업체 지속 유입  
유수 스타트업 성공 사례 통해 신규 스타트업 및 파트너사 지속 유입/성장

입주사 가치 향상  
입주 스타트업의 가치 향상 도모하여 Station F 및 파트너사 수익 창출

**Station F 선순환 구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워크샵 수, 투자 유치 규모, 프로그램 수혜자 수 등 복합적으로 검토; \*\* '17-'22.1H Station F 입주사 대상 누적 투자액 €1.8B; 출처: Station F;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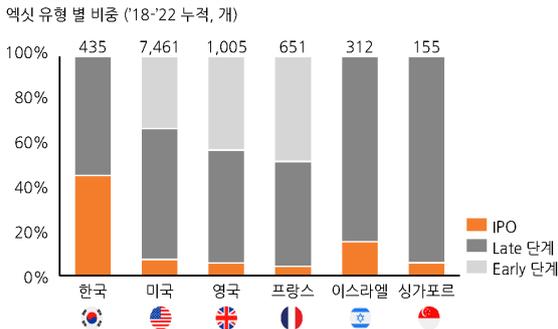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엑시트 옵션 제한

Back up: 국내는 선도국가 대비 스타트업/투자에 대한 엑시트 옵션 제한적; 국내 자본 시장 특성 및 문화적 제약으로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가 부족

엑시트 유형 별 트렌드 (한국 vs. 선도국가, Pitchbook public 데이터 기준)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 series B 이상의 late 단계 또는 기업 공개 단계에서의 엑시트를 주로 고려; 선도국가는 early/late 단계 M&A 고려



국내 스타트업/투자자의 엑시트 관련 이슈

모태 펀드 위주인 자본 환경/특성으로 late 단계 및 IPO로 엑시트 고려; 문화적 요인 또한 결부 되어 중간 회수 시장 매력도가 낮은 상황

**국내 투자/자본 시장 특성 및 환경**  
(중간 회수 발달 어렵고, IPO 통한 엑시트도 어려움)

- 모태펀드 출자 중심인 경우 risk-averse 성향: 펀드 투자 기간이 7~8년 설정되어 late 단계 선호
- Late 단계 및 IPO 타겟하더라도, 선도국가 대비 IPO 요구 조건이 높아 장기간 소요됨
  - (미국) 최근 2년 순이익 포함 USD 0.75M\* 이상 vs. (한국) 최근 1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이상\*\*

**IPO 달성 평균 소요 기간 (21년 기준, 년)** (중기부 기준)

한국	11.3
미국	6.0 (U.S. SEC 기준)

**초기 엑시트 어려운 문화적 제약**

- CVC의 스타트업 인수 시 '기업 사냥' 이미지: 인수 후 핵심 인력/기술 유출 후 경영 방치 우려 등 존재
- 창업가 또는 투자자의 초기 엑시트 시 우려 표명

엑시트 옵션 제한은 중간 회수 시장 부족 및 문화적 제약에 기인된 바, 별도 과제 보다는 개방성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생태계 조성 필요

Note: Early Stage는 Series A, Late Stage는 B 이상을 지칭; \*한화 약 10억 원 수준; \*\*나스닥 Global Capital Market과 코스닥 비교하였으며, 이익 외에도 시가총액 등 조건 존재; Source: Pitchbook; 중소벤처기업부;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커뮤니티

국내 커뮤니티는 내국인 위주 폐쇄적이고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는 제한적; 이에 대한 활성화 및 퀄리티 제고가 필요

스타트업 커뮤니티 정의

창업가/투자사/개발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

국내 커뮤니티의 개방성 이슈

기존 커뮤니티의 폐쇄적 운영 (내국인 중심)

- [운영] 국내 커뮤니티 행사는 '한글' 운영; 외국인 대상 영어는 '일회성'
- [홍보] 포럼/밋업 등 홍보는 국문만 제공되어 외국인은 인지가 어려움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퀄리티 제한적

- 'Seoul Startups' 외, 외국인 창업가 대상 활성화된 커뮤니티 부족
- 국내 내국인 중심 커뮤니티 대비 외국인 커뮤니티는 정보 다양성 및 커뮤니티 이벤트 운영 퀄리티 제한적
  - Seoul Startups는 뉴스, 리포트 등 포스팅 수 '17~ 이후 20개 ('스알' ~400개, '18~)
  - 외부 스타트업 행사 일정/장소 정보만 소개 ('스알'은 자체 기획 행사 500회+ 추최)

To-be 개선 방향성

- 캠퍼스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별도 커뮤니티 유도 (프랑스 La French Tech 및 Station F 사례\*)



- 민간 커뮤니티 주도로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산업 동향, 밋업/이벤트, 채용 정보 등 공유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거의 없음; Seoul Startups가 유일한 외국인 창업가 커뮤니티임; 개방성 강화 위해서는 영어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함.”

현 대표, Seoul Startups

\*프랑스 La French Tech 정책 수혜 받고, Station F 입주한 기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La French Tech International Community' 운영; 출처: 문헌 조사; Seoul Startups;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가 인터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 발제2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 성 훈



**김 성 훈**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kairos@lawmission.net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소셜벤처리걸클리닉,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법무관리,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SHERPA 단장
-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법률고문 전담변호사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성장펀드 전담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법률자문위원
- 연세대학교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협력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 I.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 II. 외국인 한국내 창업 시, 창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 III. 외국인 한국내 취업 시,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 V. 국내 투자사의 해외 진출 시, 투자 행정/ 절차적 제약 해소
-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 I.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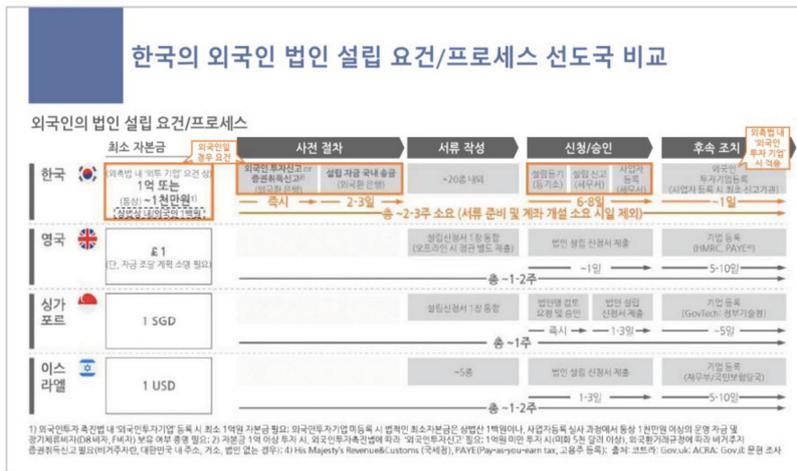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I.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 외국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불가
- 외국인은 법인 설립 전 한국은행 방문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 수행 필수

I.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I.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대안

- 최소 자본금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립
-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및 영문 시스템 도입 검토
- 법인설립과정에서 증권 취득신고 의무화한 「외국환 거래법」 개정

II. 창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II. 창업/취업 비자 발급 조건 및 제약 완화

문제점

- 창업비자의 발급 조건 엄격(학력, 서류, 법인설립 전제 요구)
- 창업비자의 갱신 주기 및 갱신 조건 엄격(매출 중심 1년 주기 평가)
- 창업가의 동반 가족 비자 발급 조건 엄격(창업가의 재직증명 및 소득 평가)

II. 창업/취업 비자 발급 조건 및 제약 완화

**국가별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및 갱신 요건**

	한국 (D-8-4 기술창업비자)	싱가포르 (EntrePass)	프랑스 (French Tech Visa)	영국 (Innovator Founder)	미국 (E-2 소액창업투자)
<b>창업 비자 발급 요건</b>	<b>핵심 요건</b> (핵심 요건외) <b>보조 요건</b> <sup>1)</sup> • OASIS 점수 획득 및 아래 1개 항목 확보 - 국제재산 보유/출발 - 3년+ 연구 목적 체류 - 창업관련 인성/자세화 평가 미비한 신청 국내 전문역사 or 외국 회사	기관 투자 유치 or 특허 등록	기관 투자 유치 or 액셀러레이팅 선발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	투자 및 비용 집행이
<b>학력</b>			La French Tech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발급	금인양어성적 (CFRE 82+)	
<b>사업계획</b>		제출-승인은 불필요	제출-승인	제출-승인	
<b>법인설립 여부</b>	설치 개시 필요				선행 필요
<b>구비 서류 수</b>	서류 12종	6종	10종	6종	18종
<b>비자 갱신 주기/요건</b>	1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평가	2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평가	4년 주기; 사업 연속 시 계속 연장	3년 주기; 사업 연속 시 계속 연장	2년 주기; 사업 실적 종합평가
<b>동반 가족 비자</b> (미국 기준 F-3)	조건부 발급 (합법적인 경우 증명 및 소득 증명)	조건부 발급 (\$100K 저축 및 현직인 고용)	조건 없이 발급	조건부 발급 (동행 신고 증명)	조건 없이 발급

1) 핵심 발급 요건 미충족 시 대체: 가) 각 정부 관련 기관 투자자의 투자; 3) 최초 갱신 시 1년 주기, 이후 2년; 4) 최소 투자액 규정은 부가해당 총상 \$50~100K+가 설립 기업 구매 및 기업 설립 소요 되는 비용 상당 범위; 출제 각 부 비자 발급제 관련 조사

## II.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 해결방안

- 창업비자 발급 요건 완화(학력, 서류,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폐지/완화)
- 창업비자 갱신 요건을 매출 중심에서 투자/비용중심으로 전환
- 동반 비자 취득 시 요구되는 소득 증빙 요건을 폐지

## III.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III.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문제점

- 취업 비자 발급 시 근로자 요건 엄격
- 취업 비자 발급 시 고용주 요건 엄격

III.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국가별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및 갱신 요건**

	한국 (E-7-1 기술형취업비자) 연 발급 건수 (단위:만 건)	미국 (H-1B) [보통 상한 관례] 8.5	영국 (Skilled Worker) 12.0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취업 비자 운영 현황 <sup>1)</sup>	0.4			4.5	
근로자 계약	학력/경력	• 관련 석사 학위 소지 or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보유 or •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관련 분야 학사 이상 or • 관련 자격증 보유	• 영국 공인인증시스템 Level 3 이상 수준 (영국 고등학교 졸업 수준)	• 학력은 가산점 성격으로 운영 (경력 요건 무제)
	체류 기간	• 최초 최대 3년 부여; 고용 유지 시 3년+a 연장 가능	• 최초 3년 부여, 이후 3년 추가 (3+3); 고용 유지 시 매년 연장	• 최초 5년 부여; 고용종종 유지 시 5년 추가 연장 (5+5)	• 최초 3년 부여; 고용 유지 시 연장 (3년 + a)
	영주권 신청 요건	• 5년 만기 체류/근무 시 영주권 신청 권한 부여 <sup>2)</sup>	• 6년 만기 체류 및 근무 시 영주권 신청 권한 부여	• 최초 5년 체류/근무 이후, 영주권 신청 권한 부여	•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권한' 부여
고용주 계약	외국인 고용 비율	• 내국인 최고용자 수 대비 20% <sup>3)</sup> 이내 비율 • 한국인 5명 당 외국인 1명	• 고용주 제약 사할 다수	N/A	
	인원 규모	• 5인 이상 기업			
	업종 제약	• '내수 사업' 업종은 제한			

1) 한국 E-7-1 발급 건수는 '22년 12월 기준 E-7-1 체류자 11,307명을 갱신 증가 3년으로 나누어 추정. 미국은 매년 ~80만명에 지원해 발급 건수를 ~8.5만 건으로 제한. 영국 발급 건수는 '22년 기준 싱가포르는 '22, 3Q 기준 11,300건 발급 관련, 연 총 발급 수 4배 수준인 ~4.5만건으로 annualized 추정. 2) 일반적으로는 E-7-1 비자가격으로 5년 이상 체류 후 F-5-1 영주 비자 신청 시 GN 2배 면담요구되나 산업발전법 5조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특례사 보유자는 3년 이상 근무/체류 및 GN 1배 수준 이상 면담 면할 수 있으므로 F-5-10 비자가 취득 가능. 3)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필연분야는 총 내국인 최고용자의 50% 이내, 특수 업종 지역 대상 취업 수를 합치는 내국인 최고용자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 허용. 출처: 로열로사, 현안가 연구팀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III.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싱가포르 취업비자 다면 평가 제도

싱가포르 취업비자(Employment Pass) 발급 심사 기준 (23년 9월 도입)

1단계: 최소 임금 수준 평가	2단계: COMPASS** 평가		
<p>전문 관리/기술직 임금(PMET)<sup>1</sup> 상위 33% 초과 시 1단계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권 SGD 5.5K / 비급여권 월 최소 SGD 5K 소득 증명 (23년 9월 기준)</li> <li>• 만 24세 이상부터 매년 최소 임금 기준 5% 인상</li> </ul>	<p>COMPASS 평가 항목 (총 110점)에서 40점 이상 획득 시, 'Employment Pass' 비자 발급 요건 달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b>기초 평가 (8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상위 10% 이상은 20점</li> <li>• 임금 상위 35% 이상 10% 미만은 10점</li> <li>• 상위 35% 미만은 0점</li> </ul> <p><b>학위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상위권 대학 학위 보유 시 20점</li> <li>• 일반 학사 학위 소지 시 10점</li> <li>• 학사 학위 미보유 시 0점</li> </ul> <p><b>보너스 평가 (3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b>다양성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 동일국적 비중 25% 미만은 20점</li> <li>• 5-25%는 10점</li> <li>• 25% 이상은 0점</li> </ul> <p><b>현지 고용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현지인 고용 비중 상위 50% 이상은 20점</li> <li>• 하위 80% 이상은 10점</li> <li>• 하위 80% 미만은 0점</li> </ul> <p><b>국가 부족 인력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b>기관 프로그램 연계 (1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경제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지원 받는 기업일 경우 10점</li> </ul> </td> </tr> </table>	<p><b>기초 평가 (8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상위 10% 이상은 20점</li> <li>• 임금 상위 35% 이상 10% 미만은 10점</li> <li>• 상위 35% 미만은 0점</li> </ul> <p><b>학위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상위권 대학 학위 보유 시 20점</li> <li>• 일반 학사 학위 소지 시 10점</li> <li>• 학사 학위 미보유 시 0점</li> </ul> <p><b>보너스 평가 (3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b>다양성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 동일국적 비중 25% 미만은 20점</li> <li>• 5-25%는 10점</li> <li>• 25% 이상은 0점</li> </ul> <p><b>현지 고용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현지인 고용 비중 상위 50% 이상은 20점</li> <li>• 하위 80% 이상은 10점</li> <li>• 하위 80% 미만은 0점</li> </ul> <p><b>국가 부족 인력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b>기관 프로그램 연계 (1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경제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지원 받는 기업일 경우 10점</li> </ul>
<p><b>기초 평가 (8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상위 10% 이상은 20점</li> <li>• 임금 상위 35% 이상 10% 미만은 10점</li> <li>• 상위 35% 미만은 0점</li> </ul> <p><b>학위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상위권 대학 학위 보유 시 20점</li> <li>• 일반 학사 학위 소지 시 10점</li> <li>• 학사 학위 미보유 시 0점</li> </ul> <p><b>보너스 평가 (3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b>다양성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 동일국적 비중 25% 미만은 20점</li> <li>• 5-25%는 10점</li> <li>• 25% 이상은 0점</li> </ul> <p><b>현지 고용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현지인 고용 비중 상위 50% 이상은 20점</li> <li>• 하위 80% 이상은 10점</li> <li>• 하위 80% 미만은 0점</li> </ul> <p><b>국가 부족 인력 (2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 공인 인력 부족 직종(SOL****) 이며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미만 시 20점</li> <li>• 회사 내 동일국적자 1/3 초과 시 10점</li> </ul> <p><b>기관 프로그램 연계 (10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경제기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지원 받는 기업일 경우 10점</li> </ul>		

\*PMET: 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Shortage Occupation List;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III. 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해결방안

- 취업 비자 발급 요건 완화 (학위 또는 경력 요건 폐지, 싱가포르 유사 다면적 평가제도 도입)
- 취업비자 고용주 제약 요건 완화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문제점

- 국내 법인 설립 단계 복잡
- 벤처투자 라이선스 취득 시 전문인력 및 자본금 요건 까다로움
-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송금 절차 복잡
- 정관 변경 시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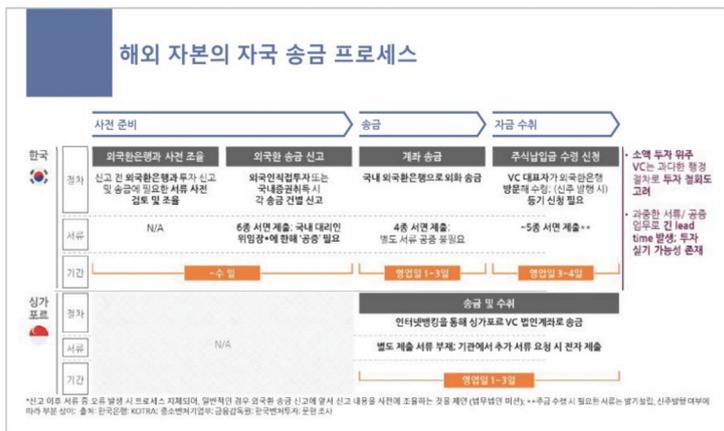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 벤처투자 라이선스 취득 요건 비교 (한국 vs 싱가포르)

	한국	싱가포르
목적	창업기투자 (액셀러레이터)	VCFM**
자본금 최소 요건	• 초기창업자금 1억 원 이상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납입 자본금 요건 부재
접수 방식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VICS) 내 서류 제출	• MAS 온라인 포털로 제출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외 6종	• 등록신청서 (Form-1V) 외 4종
투자 요건	• 최초 3년 총 투자 규모 40% 이상 '초기창업자' 대상 투자 - '초기창업자'는 1년 창업 이후 종료	• 등록신청서 외 12종 • 등록신청서 외 6종 •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총 대상 투자 • 외부투자자총액 50% 이상 • 비투자자총액 50% 이상 • 매출액 10% 이상 중소기업으로 증명
전문 인력 요건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기술자, 변호사 등 국내 전문직 - 금융·경영·법률·회계·인사·영업·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 - 최소 1인 이상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경영분야나 기술분야 해당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 - 경영·기술 분야 핵심인력 보유 - 경영·기술 분야 전문인력 보유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국내 전문직(변호사, 변호사, 회계사)	• 상근 인력 2명 이상 확보 • 싱가포르 거주 영구적 외 배도 요건 및 계약 부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기창업자(기술 및 제작용 자재제조업 등) 관련 연구·개발·경영·재무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출자·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법률; 싱가포르 금융감독원; 싱가포르 기업법; 문헌 조사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IV.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 행정/절차제약 해소

해결방안

- 법인 설립 절차 완화
- 벤처투자 라이선스 취득 요건 완화(상근 전문 인력 경력 요건, 최소 자본금 요건 폐지)
- 국내 송금 절차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V. 국내 투자사의 해외 진출 시 적용되는 투자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V. 국내 투자사의 해외 진출 시 적용되는 투자 행정/ 절차적 제약 해소

문제점

- 투자/출자 제한
  - 벤처투자회사 총 운용자산의 40% 국내 투자 의무
  - 모태펀드 출자펀드 모집액 60% 이상 주목적 투자 의무
- 지분 취득 제한
  - 창업투자회사 투자 기업 지분율 50% 초과 취득 제한
- 외국환 거래절차의 비효율성

V. 국내 투자사의 해외 진출 시 적용되는 투자 행정/ 절차적 제약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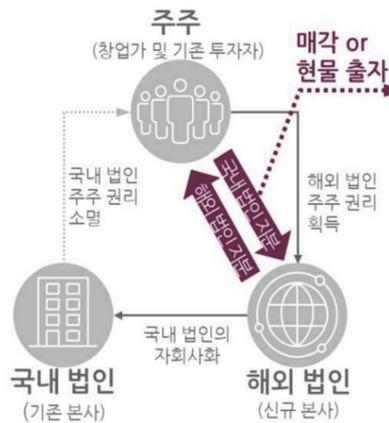
해결방안

- 투자 대상 제한 단계적 축소
- 해외 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 벤처투자회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 - 해외 지사 설립 관련 예외 적용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플립이란?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플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1위	양도소득세 (45%)
2위	LP 동의 획득, 외국환 (15%)

- 2023. 3.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법무법인 미션의 VC 대상 설문조사 결과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플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 양도 소득세 부담
- VC 동의 확보 어려움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이슈	한국	이스라엘
양도소득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자본 양도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 부과; 투자자 면세 특례 있으나 창업가는 불가</li> <li>- VC/개인투자자 국내 양도소득세는 조특법·상 면세 가능; 단, 1) 중복, 2) 해외 주식 적용 여부 불투명</li> <li>- 또한, 창업가는 면세 자체가 불가하고 액면가 대비 차액이 커서 플립 시점에 세금 납부 부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립 시 일정 조건에 따라 ~25% 양도소득세 면세; 이후 IPO시 과세</li> <li>- 지분 25% 이상은 이스라엘 국세청 승인한 이스라엘 국적 주주들이 최종 매각 시점까지 보유 의무</li> <li>- 다만, 해외에서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존재함</li> </ul>
투자자(VC) 동의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국가 변경으로 기존 주주 권한 약화 우려 (주주 계약서 재작성 및 권리 재설정 등)</li> <li>•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사후 관리 난이도 상승</li> </ul>	N/A (한국 VC와 유사 상황)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VI.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해결방안**

- 플립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 특례 대상 확대
  - 기존 투자자 대상 특례를 창업가에게도 확대
  - 과세 이연 제도 적용
- VC의 불확실성 제거
  - 해외에서 엑시팅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한 지
  -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도 면세 효과 적용되는 지 여부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법무법인 미션  
LAW FIRM FOR INNOVATORS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감사합니다

MISSION  
LAW FIRM FOR INNOVATORS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종합토론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



## 한국 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3. 12. 11

김영덕(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

### ■ 국내 투자 계약 및 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내에서 기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기존 계약 조건(각종 우선권, 이사회 구성, 승인 권한 등)에 있어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계약 조건이 해외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013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SAFE 투자가 한국에 안착되기까지 10년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의 벤처투자 계약 방식을 포함한 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투자자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난 1년 동안 디캠프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느낀 것은 현지의 유의미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캠프는 육성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의 벤처캐피탈에 출자를 함으로써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 멘토링 제공, 파트너 소개 등의 사업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최근 2년 디캠프가 출자한 해외 펀드 총 6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으로서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내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로 스타트업은 대부분 성장 단계에서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창업지원기관 또한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해외 파트너 발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해외 거점 확보, 인바운드 스타트업 유치 등의 활동이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 ■ 투자자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절차 및 제도 개선

국내 투자자 및 지원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고 후 길게는 5일 이상 소요됩니다. 만일 국외 펀드에서 취득한 지분율이 10%을 넘을 경우, 기존 절차에 더해 6개월 이내 외화증권 취득보고와 회계결산 이후 정산보고 등의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준비 서류 등으로 의사 결정 이후 집행까지의 장시간 소요되는 점 등이 국내 투자자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 ■ 해외 진출과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한국 VC의 해외 진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내 펀드는 대부분 정책금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먼저 해외에서 활동하며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국 스타트업도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국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약을 완화하여 국내 VC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 종합토론

강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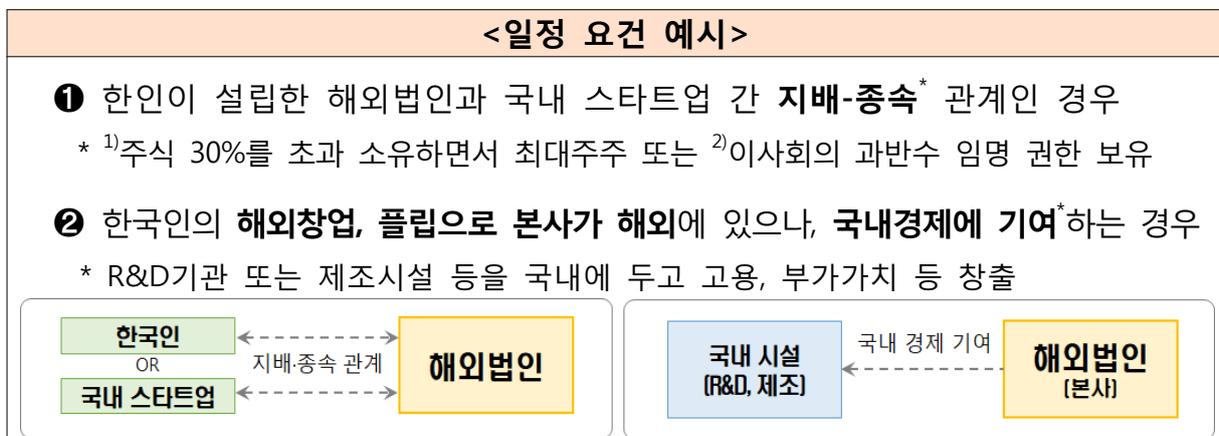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방향

### 1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의 성장 지원<sup>아웃바운드</sup>

- 한국인이 창업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마련 등 성공적인 해외정착 지원



- 해외의 VC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 ('24, 20개사)

\* 글로벌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을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타겟팅 추진

- 글로벌 펀드 확대(~'24. 10조원) 및 해외진출 전용펀드 신규 조성

<b>&lt; 해외진출 전용펀드 투자 대상(안) &gt;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주요 출자 분야</b>
1)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2)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4)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한국인 출신 창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등. 단, 이 경우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 KVIC 실리콘밸리 사무소와 연계하여 해외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미국·중동·일본 등 대륙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진출전략 수립

\* (미국) 한-미 클러스터 기관 간 협력 강화, 북미지역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  
(중동) 스타트업 행사간 파트너십 구축, 국가 간 공동펀드 조성 등  
(일본) 재외공관 기반 네트워킹 형성, 양국간 정책 교류, 한류 행사 연계 등

## 2]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아웃바운드

- 기 지원받은 기업 중 해외진출 가능성 높은 기업 Pool 구축 및 연계사업 우선 선정\* 등으로 지원 효율성과 해외 성공가능성 제고

\* (예시) 초격차 1000+ 스타트업 선정 →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 중진공 직영 청창사(5개)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청창사로 전환 검토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해외진출 발판 확대

\* (예시) VIVATECH(프랑스), SWITCH(싱가폴), CES & TECHCRUNCH(미국), SLUSH(핀란드)

-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DB」를 구축, 해외진출 지원사업 효율화

\*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 서비스 수출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관계부처) 외국인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촉진

\* 콘텐츠(문체부), 데이터(과기정통부), 푸드테크(농식품부), 에듀테크(교육부) 등 범부처 합동

- 부처 협업\* 기반의 분야별 벤처·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공공구매를 통해 창업기업 제품 대상 해외 실증 및 판로개척 지원

\* '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특화분야 : 스포츠헬스케어(문체부), 스마트시티 및 물류(국토부), 푸드·에그테크(농식품부) 등

### ③ 외국인의 창·취업 지원<sup>인바운드</sup>

□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하기 용이하도록 외국인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 **(창업비자<sup>D-8</sup>)** 기술성·사업성에 기반한 창업비자 부여 및 기술창업비자 연장시 매출 요건 외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기준 마련)

- **(학생비자<sup>D-2</sup>)**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방학 중 국내 창업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현재는 과학기술분야(학생연구원) 및 아르바이트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 **(취업비자<sup>E-7</sup>)** 역량검증\*을 통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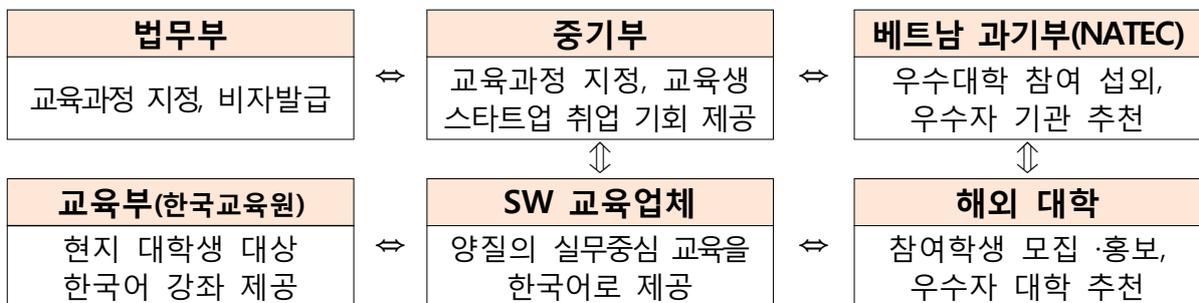
\* 도입업종(안)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 도입 (영국 GEP\* 벤치마킹)

\*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영국 본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비자멘토링·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개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K-Tech College」 추진

#### 국내 스타트업 SW분야 인력양성·공급



- 외국인 창업 촉진 위해 **전용 창업경진대회(K-그랜드 챌린지) 입상자 사업화 지원**, 「도전 K-스타트업」 現 학생리그에 유학생 트랙 신설 추진
-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를 신설

#### 4]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sup>인바운드</sup>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 K**」 구축 (수도권)
  -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 조성
- 지역도심 내 핵심권역을 창업기업 특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재구축
  - 정주여건과 창업기반 등을 갖추었거나 기획 예정인 비수도권에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하고 지역창업 클러스터로서 육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 종합토론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종합토론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